

ISSN 2734-0317

www.kita.net

KITA

통상 리포트

2024

VOL.08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이정아 수석연구원

강금윤 수석연구원

오지인 인턴연구원

KITA 통상리포트 2024 VOL.08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발행인 윤진식

편집인 조상현

발행처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발행일 2024년 8월 22일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Contents

요약

01. 중국 공급과잉 현황	1
02.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19
03. 평가 및 시사점	31

이정아 수석연구원(02-6000-5954, ja.lee@kita.or.kr)

강금윤 수석연구원(02-6000-5620, gy.kang@kita.or.kr)

오지인 인턴연구원

※ 본 리포트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최근 낮은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산 상품 수출 증가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면서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공급과잉 문제는 주로 철강과 같은 일부 전통적 제조산업에서 발생했으나, 중국의 소위 '新산업'이 급성장하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분야에서 공급과잉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분야 성장의 배경에는 대규모 산업보조금 지원 등 정부 주도의 육성정책이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 하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을 국가 차원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3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중국이 신산업에 지급한 전체 보조금 규모는 OECD 국가 평균의 3~9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지원으로 중국의 녹색산업은 기술과 규모 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내수 시장 침체로 공급이 자국 내 수요를 초과하면서 경쟁이 과열되자 정부 보조금을 받은 상품이 저가로 해외시장에 수출되며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공급과잉은 가격하락, 재고압박, 공장 가동을 저하 등을 초래하고 해외시장을 교란하여 수입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의 공급과잉율은 다른 국가 보다 높고 생산능력은 현재 세계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상당히 넘어섰다.

산업별 공급과잉을 살펴보면, 지난해 중국은 954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했으나, 판매량은 841만대에 그치며 113만대의 초과공급이 발생했다. 중국 생산 배터리는 전 세계 배터리 수요를 충족하고도 중형 전기차 156만대 분량의 배터리가 남을 정도로 초과 공급되었다. 태양광은 생산된 499GW 중 208GW만 수출되었고 전통산업인 철강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에서도 오랜 기간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되었다. 공급과잉이 발생하였음에도 일부 산업에서 중국기업들은 최대 생산능력과 설비가동률을 유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향후 공급과잉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심화 및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국들은 중국의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통해 수입 상품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해결해 왔는데, 대선을 앞두고 대중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앞서 2018년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32조 조치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232조 조치는 공급과잉 문제보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나 그 원인에는 중국산 저가공세에 대한 목적도 담겨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공급과잉을 문제 삼으며 301조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기존의 25%이던 전기차에 대한 301조 관세를 100%로 대폭 인상했으며,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등 주요 전략 품목으로도 301조 관세(▲철강·알루미늄: 0~7.5%→25%, ▲반도체: 25%→50%, ▲배터리: 7.5%→25%, ▲태양광: 25%→50% 등)를 확대하였다.

EU는 중국을 경쟁국이면서도 협력 및 협상 파트너로 인식하며,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중국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EU는 무역구제수단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WTO 규범에 합치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EU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자 주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조치를 활용해왔다. 최근

EU는 중국의 공급과잉 현상에 대해 중국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저가 전기차를 과도하게 생산함에 따라 EU시장이 왜곡된다고 주장하며 이례적으로 집행위 직권으로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였다. 또한 집행위는 덤핑·상계관세 조사 외에도 역외보조금규정(FSR)에 근거한 보조금 조사를 확대하여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견제도 시도한다.

미국은 중국의 산업 역량이 미국과 유럽 기업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 국가의 산업 발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하면서 동맹국에 협력을 촉구했다. G7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노동자·경제 회복력을 저해하는 비시장적 정책·관행의 광범위한 사용에 우려를 표명하며, 과잉생산의 잠재적·부정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WTO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발표하였다. 멕시코, 태국, 인도, 브라질 등은 중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관세 부과·기존 관세 인상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튀르키예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4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등 각각 중국산 공급과잉 대응에 나섰다.

주요국의 대중국 규제 움직임에 맞서 중국은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특히 중국은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을 강력히 비난하며 보복조치 가능성을 경고했었다. EU가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유럽 주류 생산업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발표하였으며, EU의 항공 및 농업부문에 대해서도 보복조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 외에도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中华人民共和国关税法)”을 제정하여 중국과 약속한 최혜국대우·관세 혜택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상응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제조약·협정을 위반하여 중국의 정상적인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를 허용하였다.

중국의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대응조치로 인한 통상환경은 우리 수출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의 대중국 관세정책으로 인해 일부 산업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에서는 쿼터가 있는 철강을 제외하고 배터리, 태양광, 석유화학 등에서 시장확대 기회가 예상되며, EU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중국 전기차 업체가 위축될 경우 한국 전기차 기업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산 저가 공급과잉으로 인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무역장벽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공급망 전반에 리스크가 증대되어 우리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2002년 부시 행정부의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대미 철강재 수출이 20%정도 감소할 우려가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관세조치로 대미 철강 수출물량이 제한되는 등 한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다. 더불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및 232조 조치에 대응하여 주요국이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하면서 글로벌 무역장벽이 확산되어 우리 기업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미치고 있다. 미국이 국가안보 및 자국 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철강산업에 대해 232조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던 사례가 있어 현재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치가 발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232조 및 세이프가드 조치는 301조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와 달리 모든 수입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 중국 공급과잉 현황

1. 철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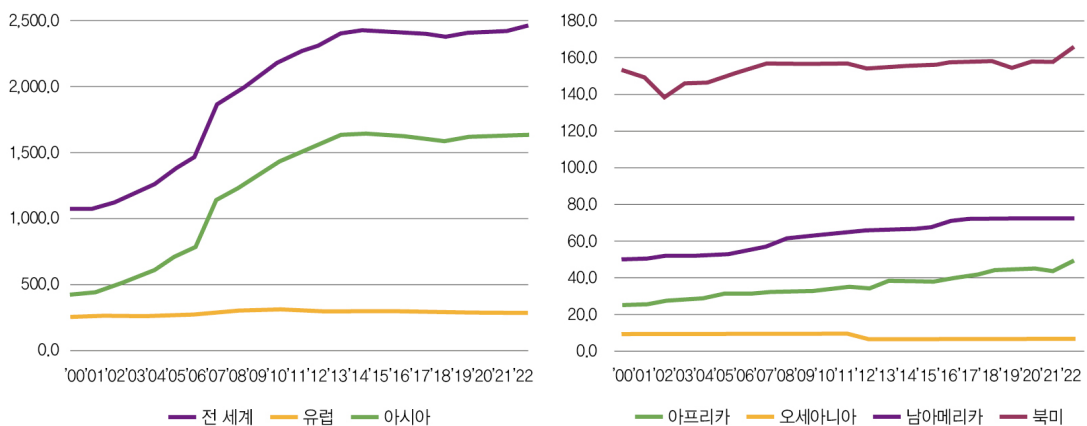
1) 글로벌 철강 생산 추이

□ 2022년 글로벌 철강 생산능력(CAPA)은 2,459백만 미터톤(mmt)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전 세계 철강 생산능력은 '14년에 2,427mmt로 전고점을 기록한 뒤 '18년까지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다 '19년 이후 평균 20mmt씩 연속 성장
 - 전체적인 규모에 비추어봤을 때 지난 10년간('13-'22) 철강 생산능력 증가세는 다소 둔화
- (아시아) 전체의 약 66%를 차지하는 아시아의 생산능력이 전 세계 생산능력을 좌우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남미의 생산능력도 꾸준히 신장
 - 아시아의 생산능력은 '00년 이후 '22년까지 연평균 6.2%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아프리카와 남미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3.0%, 1.7%에 그침
- (유럽·북미) 유럽과 북미의 생산능력은 '00년 기준 전체의 39%를 차지했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여 '13년에는 19%로 위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
 - '22년 기준 북미는 165mmt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전 20년 간 최고 수준이며, 유럽의 생산능력은 291mmt로 전고점(309mmt, 2010년) 대비 17mmt 감소

〈그림1. 전 세계 및 지역별 철강 생산능력 추이〉

(단위: m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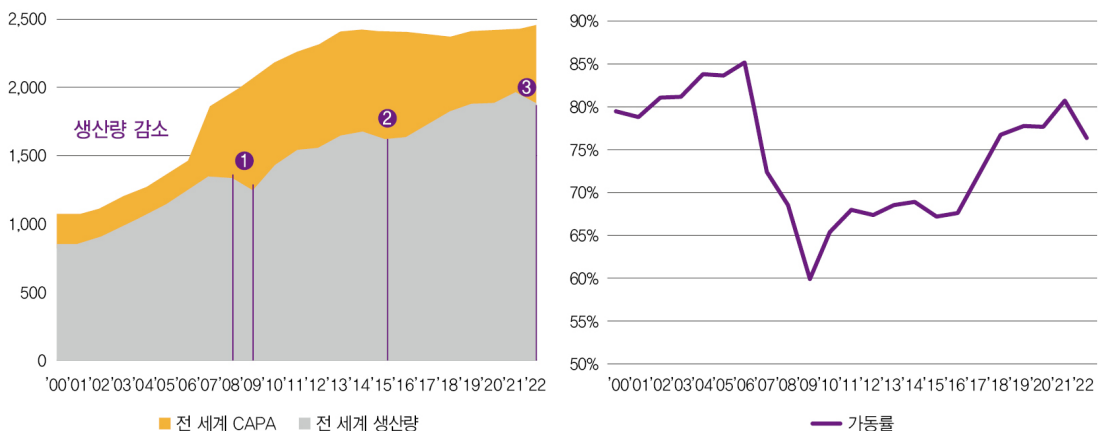
자료: OECD

주: 북미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포함

□ 글로벌 철강 생산량은 '21년 1,962mmt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2년 1,885mmt로 소폭 감소

- 2000년대 들어 ①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속 '08~'09년, ②중국의 철강 공급과잉 및 자동차·조선 등 수요산업 부진이 대두되던 '15년, ③'2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생산량 감소가 나타남
 - － '22년 철강 생산량 감소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경제 환경 불확실성 증가 및 철강 업체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것으로 평가¹⁾
- 글로벌 철강 생산설비 가동률은 '17년 이후 철강 생산설비 증가세 둔화와 맞물려 평균 77% 수준을 유지
 - － 철강 생산설비 가동률은 '02~'06년 80%대를 유지했으나 생산설비 급증으로 '09년 60%까지 감소한 후 '16년 평균 68%에 그침

〈그림2. 글로벌 철강 생산량 및 가동률〉



자료: OECD, WSA

□ 국가별로 중국이 1,018mmt로 전 세계 철강 생산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며, 인도(125mmt), 일본(89mmt), 미국(81mmt), 러시아(72mmt), 한국(66mmt) 순으로 생산('22년 기준)

- 중국의 철강생산량은 127mmt('00년)에서 1,018mmt('22년)로 6.9배 확대됐으며 22년간 연평균 9.9%씩 증가한 수치
- 인도는 '00년 기준 세계 9위 철강생산국이었으나, 정부 주도의 철강 산업 육성 노력과 인프라 개발 확대 등에 힘입어 '22년 기준 세계 2위까지 상승
- 한국은 '22년 기준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으로 '18년 73mmt의 최대 생산량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 추세

1) OECD(2024.6.12.), *Latest Developments in Steelmaking Capacity and Outlook until 2026*, OECD.

〈표1. 국가별 철강 생산량 추이〉

(단위: mmt, %)

순위	국가	2000(A)	2022(B)	(B)-(A)	연평균 증감률
전 세계		848	1885	1,038	3.7%
1	중국	127	1,018	891	9.9%
2	인도	27	125	98	7.2%
3	일본	106	89	-17	-0.8%
4	미국	102	81	-21	-1.0%
5	러시아	59	72	13	0.9%
6	한국	43	66	23	2.0%
7	독일	46	37	-9	-1.0%
8	튀르키예	14	35	21	4.2%
9	브라질	28	34	6	0.9%
10	이란	7	31	24	7.3%

자료: WSA

주: 순위는 2022년 기준

2) 중국의 철강 생산 추이

- 중국의 철강 생산 설비 규모는 '14년 1,223mmt로 고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이나, 가동률이 증가해 오히려 철강 생산량은 증가
 - 중국은 '16.1월, 향후 5개년간 최대 1.5억 톤 규모의 철강 설비 감축계획을 발표하고²⁾, 이후 연평균 1,217만씩 설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남³⁾
 - 반면 '14년 기준 67%였던 설비 가동률은 '20년 93%까지 상승했고 같은 기간 철강 생산량은 808mmt에서 1,065mmt로 증가
 - － 중국은 '24년에도 철강 생산 규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⁴⁾, 시장에서는 단기간 내에 감산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⁵⁾
-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서 '00년 기준 15% 수준이던 글로벌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년에는 57%까지 도달
 -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약 20여년 간 세계 철강 산업의 성장을 견인했으며, '16년 이후 줄곧 전 세계 생산량의 과반 이상을 차지
 - － 중국의 철강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따라 생산 설비 및 생산량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철강 산업에서 중국의 비중은 매우 큼

2) Bloomberg(2016.1.24.), "China Pledges Steel, Coal Capacity Cuts in Supply-Side Reforms",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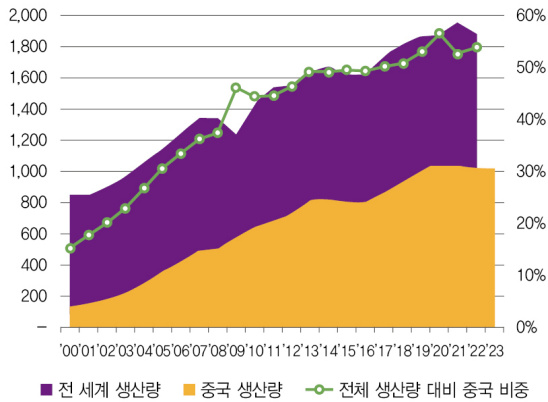
3) OECD Steelmaking Capacity Database 참조.

4) NDRC(2024.4.3.), "国家发展改革委 工业和信息化部等部门就2024年粗钢产量调控工作进行研究部署", NDRC.

5) Jessica Zong, *et al.*, (2024.4.19.), "Why China's new 2024 steel output cut policy is altering value chain dynamics", *Fastmarkets*.

〈그림3. 중국 철강 생산량 및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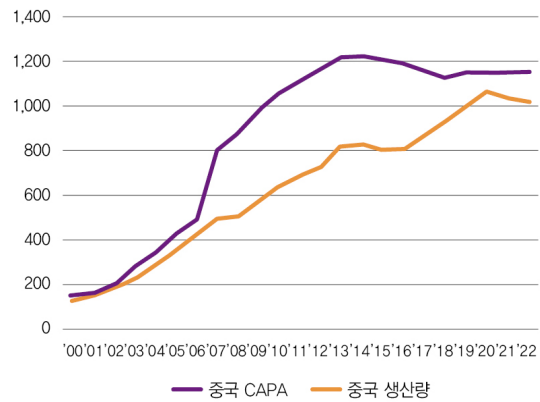
(단위: mmt, %)



자료: WSA, 중국국가통계국(NBS)

〈그림4. 중국 철강 생산량 및 점유율〉

(단위: mmt)



자료: OECD, 중국국가통계국(NBS)

〈표2. 중국 철강 생산량 및 점유율〉

(단위: mmt, %)

연도	전세계 생산량 (A)	중국 생산량 (B)	생산 점유율 (B)/(A)	중국 CAPA (C)	가동률 (B)/(C)
2000	850	129	15%	150	86%
2005	1,148	353	31%	424	83%
2010	1,435	637	44%	1,058	60%
2015	1,624	804	49%	1,209	67%
2020	1,882	1,065	57%	1,148	93%
2021	1,962	1,035	53%	1,146	90%
2022	1,885	1,018	54%	1,150	89%
2023	n.a.	1,019	n.a.	n.a.	n.a.

자료: WSA, NBS

□ 중국은 자국 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철강 내수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잉여 생산분을 수출 확대를 통해 밀어낼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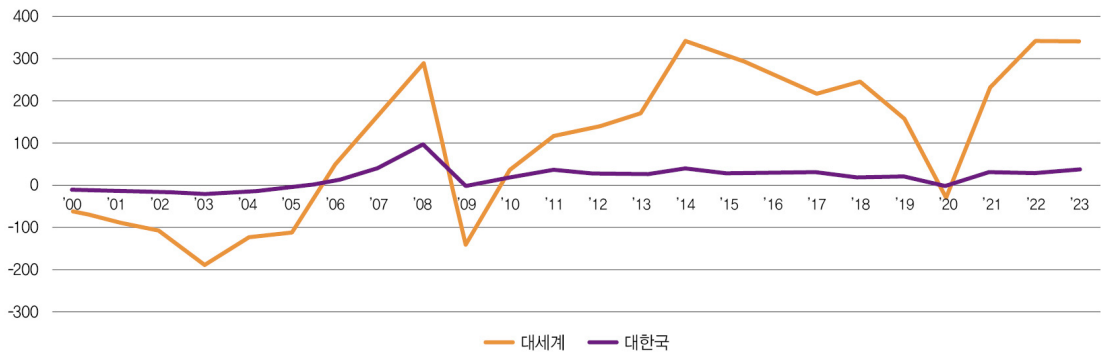
- 세계철강협회(WSA)는 중국 내 부동산 투자 감소세로 인해 철강 수요 역시 '25년부터 하락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⁶⁾

6) Worldsteel Association(2024.4.9.), *Worldsteel Short Range Outlook April 2024*, Worldsteel Association.

- 중국의 철강 순수출은 공급과잉 문제가 대두되던 '14년도 343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 '22년과 '23년에도 341억 달러에 달해 전고점에 근접
- 중국의 대한민국 순수출액은 '22년 28억 달러에서 '23년 37억 달러로 약 32% 증가했으며 중국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저가공세를 통한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⁷⁾

〈그림5. 중국 철강(HS 72) 순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



자료: K-Stat

7) 강기현(2024.5.17.), “美, 중국 때리자 한국이 운다…‘철강 밀어내기’에 업계 직격탄”, 중앙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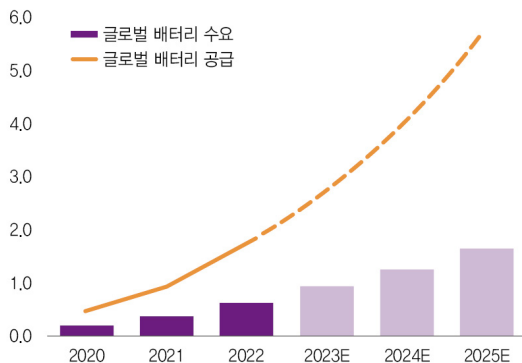
2. 배터리

□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의 배터리 생산 규모는 이미 시장 수요를 초과하였으며, 배터리 가격은 '24년에도 하락세를 지속

- '24년 글로벌 배터리 생산능력은 4.1TWh, 예상 수요는 1.3TWh이고, '25년 생산능력은 5.8TWh, 예상 수요 1.6TWh로 과잉 공급이 지속될 전망⁸⁾
-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팩 가격은 '13년부터 지속 하락('22년 제외)하였으며 '24년 가격은 전년 대비 6% 하락한 \$133/kWh가 될 것으로 예상⁹⁾
- 전기차 시장 둔화, 과잉재고, 중간 소재 업체들의 재고조정, 원자재 공급량 증가 등의 요인으로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는 한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EU 및 미국의 투자로 배터리 생산능력이 확대되어 가격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¹⁰⁾
 - － 공급과잉은 배터리 가격 하락, 재고압박, 공장 가동률 저하로 이어져 배터리 제조업체의 경영에 영향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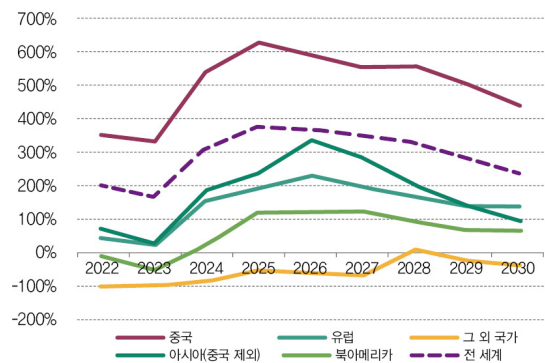
〈그림6. 글로벌 이차전지 수요 및 공급 전망〉

(단위: TWh)



자료: Yai Sekine(2024.1.29.), *Energy Storage: 10 Things to Watch in 2024*, BloombergNEF.

〈그림7. 이차전지 공급과잉률〉



자료: Jiayan Shi(2024.4.3.), BloombergNEF.

주: 공급과잉률= 특정 연도의 생산능력/해당 연도의 시장 수요

8)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CATL, BYD 등 20개 글로벌 배터리 제조기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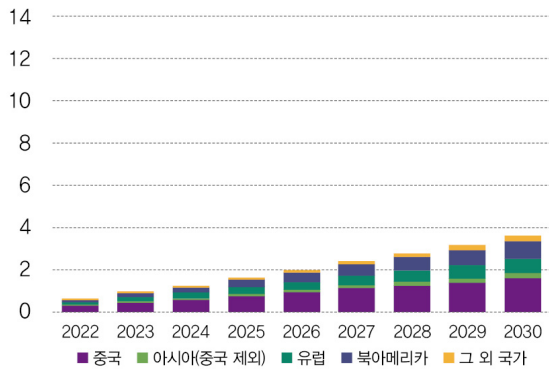
9) Yai Sekine(2024.1.29.), *Energy Storage: 10 Things to Watch in 2024*, BloombergNEF.

10) Yai Sekine(2024.1.29.),; Evelina Stoikou(2023.11.27.), "Battery Prices Are Falling Again as Raw Material Costs Drop", *Bloomberg*.

11) 공급과잉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재고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10대 배터리 기업의 공장 가동률은 '26년까지 5~60% 수준(중소형 기업은 30%이하)에 머물 전망. 선두기업 CATL의 경우 '23년 재고량이 '19년 대비 12.6배 증가하였으며, 생산능력('23년 기준 254GWh) 대비 공장가동률은 60.5%에 불과. 최재희(2024.3.20.),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연구 및 시사점", 연구자료 23-12, KIEP.

〈그림8. 국가별 이차전지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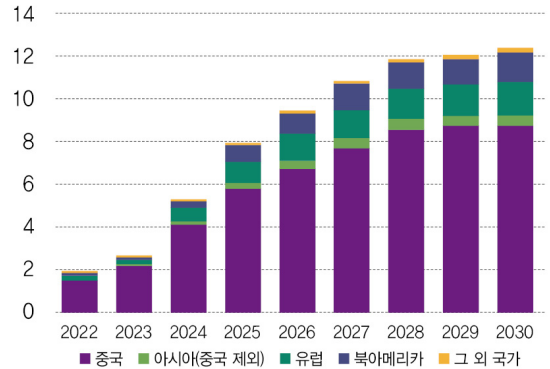
(단위: TWh)



자료: Jiayan Shi(2024.4.3.), *Company profiles:2023 global battery manufacturers part 2*, BloombergNEF.

〈그림9. 국가별 이차전지 생산능력〉

(단위: TWh)



자료: Jiayan Shi(2024.4.3.), BloombergNEF.

□ 중국의 배터리 생산능력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수요를 초과하며, 국내 수요 대비 공급과잉 수준도 다른 국가 대비 높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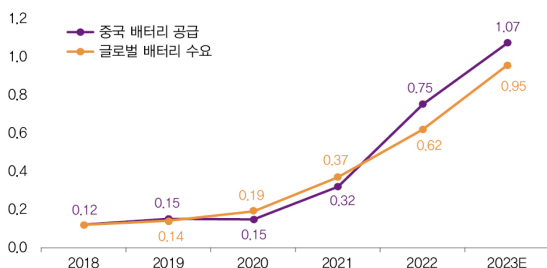
- '23년 중국 배터리 생산량*은 1.07TWh로 전 세계 수요인 0.95TWh 보다도 0.12TWh 높은 수준

* 중국 생산 배터리만으로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고도 중형 전기차 156만대 분량의 배터리가 남는 상황으로 추정(약 77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는 아이오닉5 롱레인지 모델 기준)¹²⁾

- '23년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생산능력은 1,500GWh, 중국 내 배터리 수요 예상치는 636GWh이며 '24년은 2,075GWh/802GWh, '25년은 2,872GWh/933GWh로 과잉생산 상태가 지속될 전망

〈그림10. 글로벌 이차전지 수요 및 중국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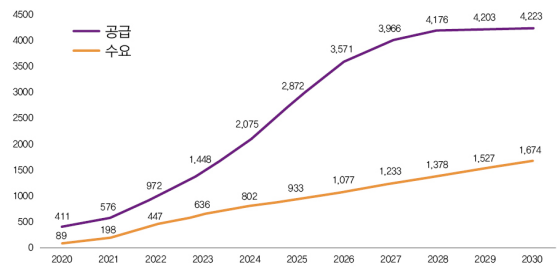
(단위: TWh)



자료: Evelina Stoikou, *et al.*(2023.11.27.), *2023 Lithium-Ion Battery Price Survey*, BloombergNEF.

〈그림11. 중국 이차전지 수요 및 공급〉

(단위: GWh)



자료: Financial Times(2023)¹³⁾, CRU group

주1: 중국 국내 수요 및 공급 예상치

12) 자동차 별 배터리 평균치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Electric Vehicle Database, "Useable battery capacity of full electric vehicle", <https://ev-database.org/cheatsheet/useable-battery-capacity-electric-car>.

□ 중국기업의 배터리 생산량이 자국 수요를 초과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받은 배터리가 수출되어 글로벌 시장을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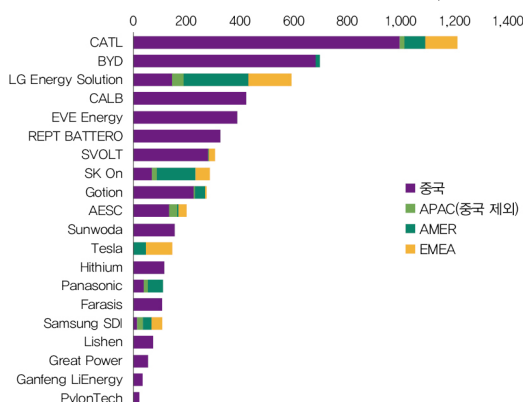
- 보조금을 받은 배터리 기업의 생산량이 자국 수요를 초과하자 저가 중국 배터리가 남아프리카,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새로운 시장진출을 모색
 - 중국의 보조금·지원정책*은 중국 내수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추천 대상에서 외국계 기업을 제외¹⁴⁾

*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을 통해 리튬이온전지 지원, ▲핵심 기술의 연구 개발 지원에 특별자금 및 펀드 제공, ▲기업에 세제 혜택, 연구 개발 자금 등 우대혜택 제공 등

□ 글로벌 전기차와 배터리의 수요가 증가하며 '25년에는 연간 배터리 수요가 1.65TWh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배터리 제조업체들도 각각 최대 생산능력을 구축할 계획¹⁵⁾

-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인 CATL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확대 중이며, CATL은 유럽, 북미 지역 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향후 전기차용 배터리 뿐만 아니라 ESS(Energy Storage System)분야의 배터리 수요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배터리 가치사슬 전반에서 경쟁우위를 보유한 중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과 발전은 지속될 전망

〈그림12. 2025년까지의 기업별 이차전지 생산능력〉
(단위: G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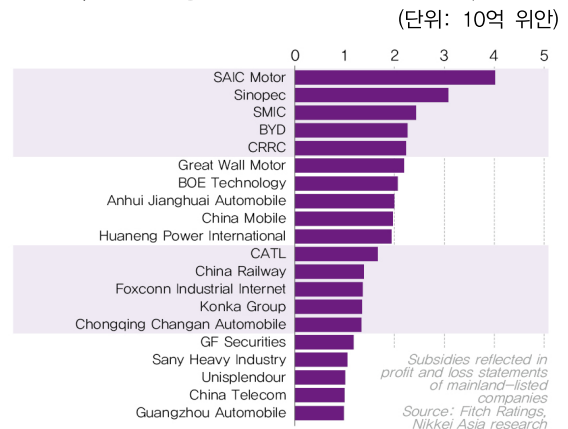
자료: Jiayan Shi(2024.4.3.), BloombergNEF.

주1: 배터리 및 자동차 제조업체 합작회사 생산능력 포함

주2: APAC: 아시아국가, AMER: 북미·남미 국가,

EMEA: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

〈그림13. 중국 정부 보조금 수여 기업〉



자료: Kenji Kawase(2022.7.22.), 'Made in China 2025'

thrives with subsidies for tech, EV makers, Nikkei Asia.

주: 2021년 기준

13) Harry Dempsey and Edward White(2023.9.4.), "China's battery plant rush raises fears of global squeeze", *Financial Times*.

14) 조은교(2023.4.24.), "중국 배터리 산업의 발전전략과 전망", INChinaBrief Vol.419, 인천연구원.

15) Jiayan Shi(2024.4.3.), *Company profiles:2023 global battery manufacturers part 2*, BloombergNEF; Edward White, Cheng Leng and Clair Bushey(2024.4.4.), "China's 'battery king' faces scrutiny over EV market dominance", *Financial Times*.

3. 전기차

- '23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1,407만 대를 기록했으나 향후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
- 전기차 시장은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했으나 최근 경제 불확실성과 소비자 수요 변화 등에 따른 수요 둔화로 인해 '24년 판매량은 전년대비 17% 성장에 그친 1,641만 대를 기록할 전망¹⁶⁾

-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YoY)은 '21년 109%, '22년 57%, '23년 34%로 점차 감소 추세이며 '24년을 기점으로 성장세 둔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평가¹⁷⁾

-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의 '23년 기준 전기차 판매 대수는 841만 대로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증가율(YoY) 역시 '21년 156%에서 '23년 3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3. 전세계 전기차(BEV+PHEV) 판매량〉

(단위: 만 대, %)

지역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F
중국	123	130	333	625	841	997
유럽	59	141	237	264	314	338
북미	39	37	74	112	166	209
아시아(중국 제외)	10	12	23	46	67	79
기타	1	1	4	8	19	18
합계	232	321	672	1,054	1,407	1,641
증가율(YoY)	1%	39%	109%	57%	34%	17%

자료:SNE Research

- '23년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은 954만 대이며, '23.12월에는 역대 최대 월 생산량(117만 대)을 기록
- 최근 3개년간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 증가율(YoY)과 판매량 증가율(YoY)은 모두 감소 추세이지만, 판매량 증가율이 더 많이 감소하고 있어 중국 내 전기차 과잉생산이 우려됨

* [A] 전기차 생산량(증가율): '21년 353만 대(159%) → '22년 704만 대(99%) → '23년 954만 대(36%)

[B] 전기차 판매량(증가율): '21년 333만 대(156%) → '22년 625만 대(88%) → '23년 841만 대(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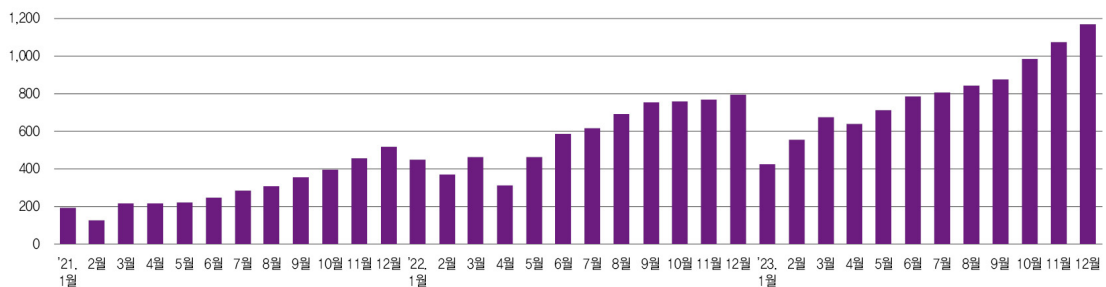
[C] 차이([A]-[B]): '21년 20만 대 → '22년 79만 대 → '23년 113만 대

16) SNE Research(2024.3.14.), 2024 Global EV Market Expected to See Sales of 16.4 million Units, 16.6% YoY Growth, SNE Research.
17) Ibid.

- 중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 및 기타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국 전기차 산업을 육성했고¹⁸⁾,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이 시행된 '09년부터 '22년까지 지급된 보조금 액수만 약 1,730억 달러(약 239조 원)에 달함¹⁹⁾
- － 국내 보조금 정책이 '2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보조금 혜택이 남아있는 국가에 공장 건설을 착수하는 한편 수출을 통해 자국 내 전기차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²⁰⁾

〈그림14. 중국의 월별 전기차 생산량('21-'23)〉

(단위: 천 대)



자료: CAAM

- '20년 22만대에 불과했던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연평균 75% 성장하여 '23년 120만대를 기록
 - '23년도 기준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전체 자동차 수출량(491만 대)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비중은 '21년도 15%, '22년도 22% 대비 지속 상승
 - 유럽과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규제에 나서자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남미와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을 가속화 하고 해당 지역으로의 수출도 확대하는 추세²¹⁾
 - － 동남아시아의 '23.2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894% 증가했으며, 동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2년 38%에서 '23년에 약 75%로 증가하는 등 수요 증가의 대부분을 중국 기업이 흡수²²⁾
 - － 중국의 대한민국 전기차 수출액은 '19년 기준 6백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3년에는 5.3억 달러를 기록했고, '24.4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이미 직전 연도 수출액의 84% 수준인 4.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증가

18) S&P Global(2019.11.11.), "China Continues Support For New-Energy Vehicles Despite Subsidy Phaseout", S&P Global.

19) Yoko Kubota and Clarence Leong(2024.4.28.), "Why China Keeps Making More Cars Than It Needs", *The Wall Street Jour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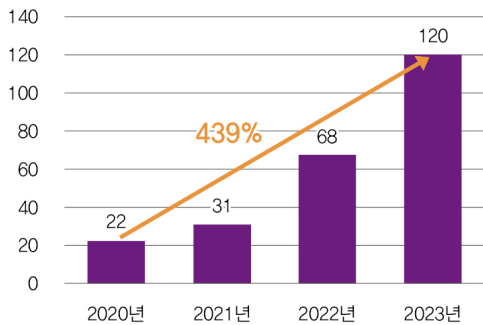
20) 조성호, 표태준(2024.3.24.), "‘싼게 비지떡 아냐’ 中 전기차 쾌속 질주...美·中 ‘차마갯돈’ 본격화", 중앙일보.

21) Daryl Lim(2024.1.22.), "China's global EV expansion despite trade hurdles from the US and EU", *Think China*.

22) Nancy Wei(2024.3.2.), "Voltage Visions: China's EV Surge in Southeast Asia", *The Diplomat*.

〈그림15. 중국의 전기차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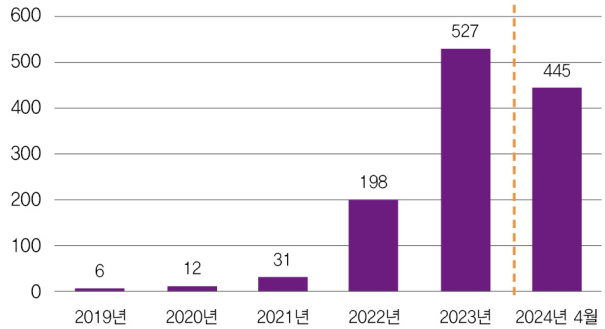
(단위: 만 대)



자료: CAAM

〈그림16. 중국의 대한국 전기차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불)



자료: K-Stat 중국(ETCN)

주: HS 코드 870380(BEV)로 조회

□ 전기차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자 가격 인하 경쟁에 돌입

- BYD는 '24.2월 중국 내 전기차 모델의 판매가를 5~20% 할인하여 판매했으며, 이로 인해 타 브랜드 50개 모델 가격이 평균 10% 하락한 바 있음²³⁾
- '23년 중국에서 전기차를 한 대라도 생산한 적이 있는 기업 수는 50개 이상이며, 이 중 80%의 기업이 손익분기점을 하회²⁴⁾
 - － 공급과잉으로 인해 지난해 공장 가동률은 50% 내외에 불과했으나 가격 인하 경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전기차 제조비용의 30~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에도 영향

23) Daniel Ren(2024.4.28.), "China EV price war to worsen as market share takes priority over profit, hastening demise of smaller players", *SCMP*.

24) 성일만(2024.4.27.), "공급 과잉 중국 전기차, 공장 가동률 50%에도 가격 경쟁 가속", 글로벌이코노믹.

4. 태양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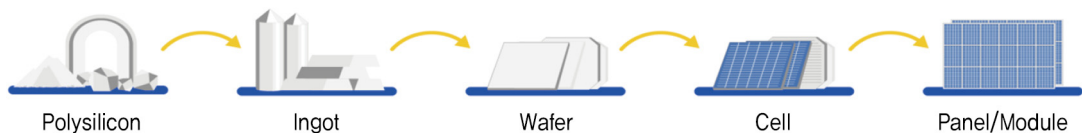
□ 중국이 태양광을 3대 新사업(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중 하나로 지정한 후 생산능력을 크게 확장하면서 태양광 시장에 과잉 공급 현상이 발생

○ 중국 정부는 '23년 태양광 산업에 1,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신규 태양광 설비용량 216.88GW를 추가²⁵⁾

— 현재 글로벌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폴리실리콘 93%, 웨이퍼 95%, 셀 88%, 모듈 83%로 모든 부품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²⁶⁾

〈그림17. 태양광 밸류체인〉

Key stages in the main manufacturing process for solar P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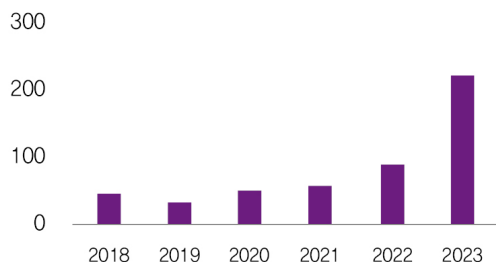


자료: IEA, Solar PV Global Supply Chains(2022)

○ '23년 기준 중국의 모듈 생산능력은 1,012GW이며, 이는 중국의 태양광 패널 설치량 240GW과 글로벌 설치량 413GW의 합을 상회하는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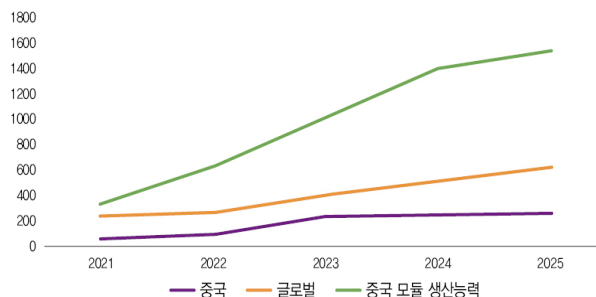
〈그림18. 중국의 신규 태양광 설비능력〉

(단위: GW)



〈그림19. 태양광 설치량과 중국의 모듈 생산능력〉

(단위: GW)



자료: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of China(2023) 자료: BNEF, Woodmackenzie

25) 이진원(2024.2.5.),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 공습에 美·유럽 업체 생존 위기”, ESG경제; 에너지경제신문(2024.1.30.), “중국, 재생에너지 설비 화력발전 추월... 한국에 크게 앞서”, 에너지경제.

26) IEA(2024), *Renewables 2023*, IEA.

□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단가가 하락하고 '23년부터 태양광 가격과 설비 가동률도 하락

- 태양광 모듈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경우 '21년 가격 급등 후 '23.3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4.4월에는 '20.7월 이후 최저치인 7.7달러까지 기록
- 태양광 웨이퍼 가격은 '23.3월 0.8달러에서 '24.3월 0.2달러로 1년 사이 75% 하락

〈그림20. 중국 폴리실리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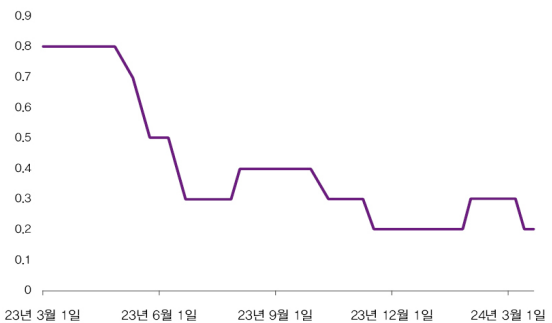
(단위: 달러)



자료: BNEF, Solar Silicon Prices Fall to Lowest Since 2020 (2024)

〈그림21. 웨이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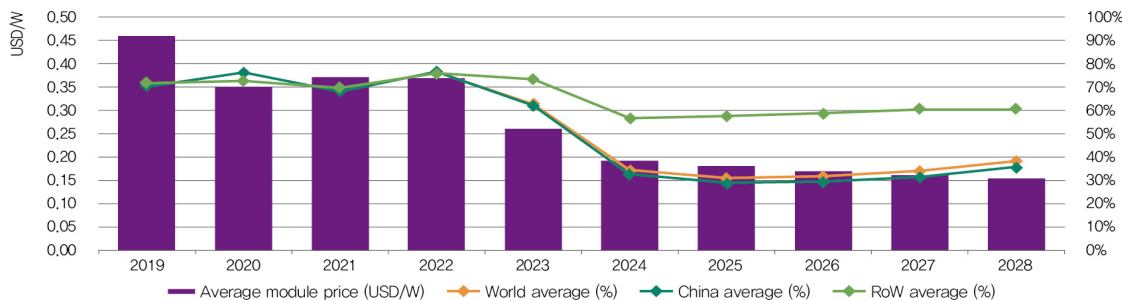
(단위: 달러)



자료: Bloomberg

- 태양광 밸류체인 가격 하락은 모듈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23년 태양광 모듈 가격 역시 50% 하락했고, 태양광 산업의 수익성이 감소했다는 우려도 발생²⁷⁾
- 태양광 제조 설비 가동률은 '22년 최고치인 75.4%를 기록한 후 '23년 60%로 감소했으며, 모듈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가동률 하락세도 유지될 전망

〈그림22. 모듈 가격과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설비가동률〉



자료: IEA, Average manufacturing capacity utilisation and global PV module prices, 2019–2028(2024)

27) 김지연(2024.3.25.), “中 태양광 업계, 공급과잉·가격경쟁에 연일 가격 폭락 “해외 공략도 난국””, Greenium.

- '24년 기준 중국의 모듈 생산능력 1,405GW, 중국과 글로벌 태양광 패널 설치량은 각각 255GW와 511GW로 공급과잉이 계속될 전망
- 중국은 내수 시장이 위축되자 수출 물량을 늘려오는 방식으로 과잉생산분을 해결해왔고,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은 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조치 도입에 나섬
 - '23년 중국 제조업체가 생산한 태양광 모듈 499GW 중 208GW가 수출되었으며, 이는 '22년 수출량인 154.8GW 대비 34% 증가한 수치
 - 미국의 301조 관세,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등의 정책으로 인해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중국 내 공급과잉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²⁸⁾
 - 한편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증설이 예정되어 있어 생산능력 확장은 계속될 전망²⁹⁾
 -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태양광산업 로드맵'에 따르면 '24년 모든 밸류체인에서 생산량을 50% 늘릴 예정이며, 올해 중국 모듈 상위 10개의 기업들의 모듈 생산계획만 700GW에 이릅니다
 - 중국은 '24년 1,100GW, '28년에는 540GW의 신규 태양광 제조·설비 능력을 증설하며 '28년까지 생산 용량 확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

28) 강정화(2024), "2023년 하반기 태양광산업 동향", VOL.2024-반기-1 인프라금융부, 한국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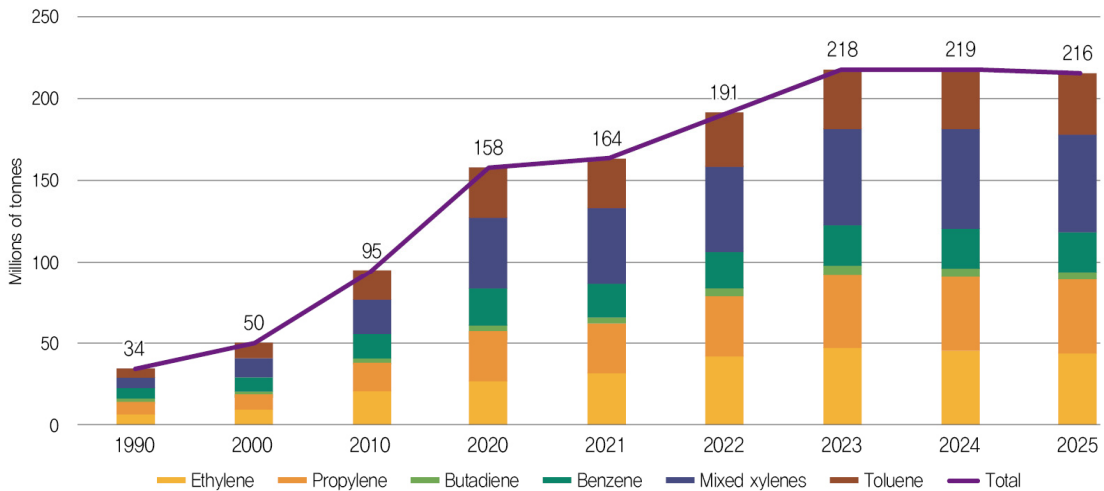
29) Taiyangnews(2024.3.15.), "CPIA Roadmap Forecasts China To Increase Solar Module Production By Over 50% To Exceed 750 GW", *Taiyangnews*.

5. 석유화학

□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포함한 석유화학 밸류체인 전반에서 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

- 석유화학산업 규모는 다양한 화학제품 중간재의 기초유분인 에틸렌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하는데³⁰⁾, 에틸렌은 '18년부터 현재까지 공급과잉 기조를 보임
 - '24년 글로벌 생산능력은 229MT, 예상 수요는 188MT이고, '25년 생산능력은 231MT, 예상 수요는 195MT로 공급과잉이 지속될 전망
 - 에틸렌을 비롯한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혼합 자일렌, 톨루엔 등 6대 석유화학 제품군에서도 공급 과잉이 발생³¹⁾

〈그림23. 6대 석유화학 제품군에서의 공급과잉〉



*Equivalent demand, meaning demand for the monomers in all their downstream markets

자료: ICIS Supply&Demand Database(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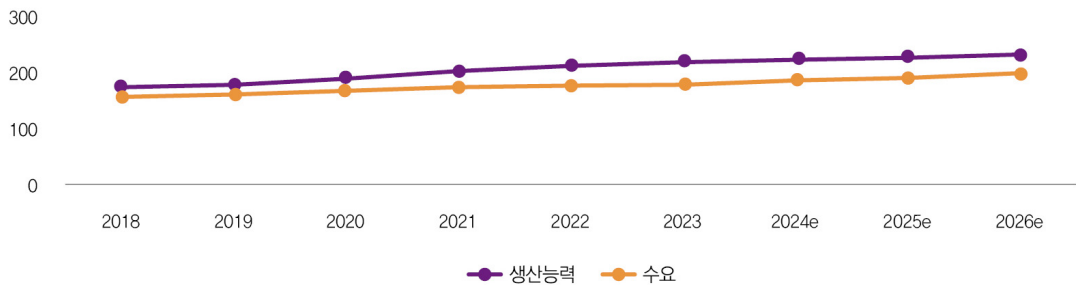
30) 산업통상자원부, e-나라지표: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석유화학분야)

31) John Richardson(2023.6.29.), "The China debate seems to be over so let's move on to other markets", ICIS.

- '24년부터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며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예상보다 높은 생산능력 확장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계속될 전망³²⁾

〈그림24. 글로벌 에틸렌 생산능력, 수요〉

(단위: 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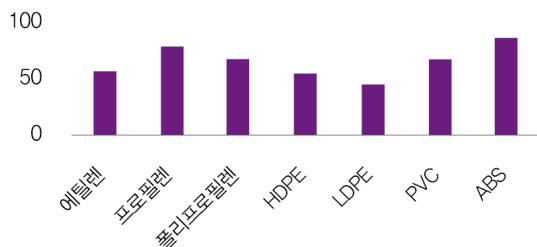


자료: 한국석유화학협회

□ 현재 글로벌 석유화학 생산능력 확장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은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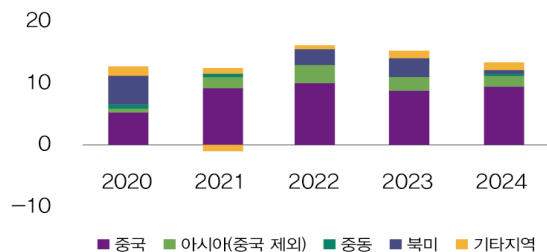
- '20년~'22년 주요 제품군별 글로벌 석유화학 증설 물량에서 중국은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
 - 기초유분인 에틸렌과 프로필렌에서 각각 56%와 78%, 합성수지 증설분 중 HDPE 53%, LDPE 45%, PP 66%, PVC 67%, ABS 85%가 중국의 물량
- '22년 기준 중국의 석유화학 생산능력 성장률은 8.9%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2.1%), 북미(3%)의 평균 성장률 대비 높음

〈그림25. 주요 석유화학제품 글로벌 증설 중 중국 비중(2020-2022)〉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6. 지역별 석유화학 생산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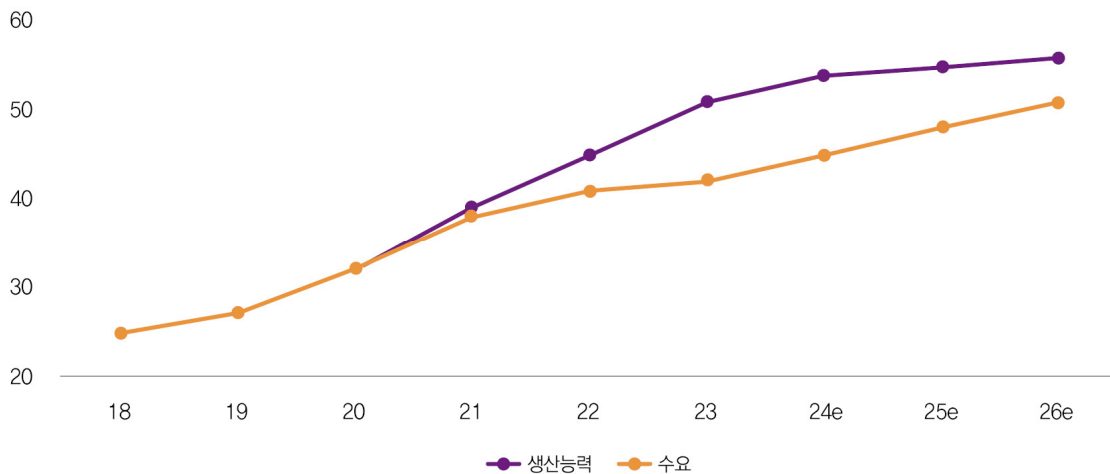


자료: IEA, Growth in regional petrochemicals Capacity, 2019-2024(2024)

32) Thian Thiomsak(2023.4.26), *Industry Outlook 2023-2025: Petrochemicals*, Krungsri Research.

- 중국은 글로벌 에틸렌 생산능력 1위 국가로 부상했으나, 현재 에틸렌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며 공급과잉 현상 발생³³⁾
- '22년 에틸렌 생산능력을 45MT까지 확장한 중국은 43MT의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에틸렌 생산능력 1위 국가로 부상
 - － 중국은 '25년까지 주요 기초유분 및 중간원료를 100% 자급한다는 목표 하에 '22년부터 1,755만톤에 달하는 대규모 증설을 계획하고 실행³⁴⁾
 - '24년 중국 에틸렌 생산능력은 54MT, 예상 수요는 45MT이고, '25년 생산능력은 55MT, 예상 수요는 48MT로 공급과잉이 지속될 전망

〈그림27. 중국 에틸렌 수요와 공급〉



자료: 산업자료, 한국석유화학협회(2023)

33) 성동원(2023.12.28.),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3대 리스크 점검”, 2023 이슈보고서, 한국수출입은행.

34) KOTRA 베이징무역관(2022.12.13.), “중국, 에틸렌 설비증설 가속화”, CSF 중국전문가포럼.

- '24년~'25년 증설은 '20년~'23년 증설에 비해 증가세가 완화되었으나 지난 3년 간의 증설 규모가 상당했던 점을 감안할 때 공급과잉 해결에 상당한 시간 소요 전망³⁵⁾
- 글로벌 에틸렌 증설 규모는 '23년 990만톤에서 '24년 530만톤으로, 폴리에틸렌은 700만톤에서 330만톤으로 증가세가 줄어들 전망
 - '21년~'23년 동안 연평균 730만톤 씩 증설한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이나, 그동안 추가 생산된 물량 소비에 상당 시간 필요
 - 중국이 설비 가동률을 80% 상회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신규 증설이 감소하더라도 기존에 증설된 설비를 통한 공급과잉은 이어질 전망³⁶⁾
 - 글로벌 프로필렌 증설 규모는 '23년 1,100만톤에서 '24년 830만톤으로, 폴리프로필렌은 700만톤에서 670만톤으로 감소할 전망
 - 그러나 중국이 '24년까지 프로필렌 제조공법 중 하나인 PDH 설비 대규모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공급 과잉 상황은 개선되기 어려움³⁷⁾

35) 전유진(2023.11.13), "[정유/화학/에너지 전망] 이성과 감성 사이의 밀당", 하이투자증권.

36) 홍유담(2023.3.20), "중국 석유화학 원료 자급률 확대...국내 업황부진 장기화", 연합뉴스.

37) Mysteel(2024.1.8.), "New projects to boost China's PDH capacity up to 77% in 2024-2025", Mysteel.

2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 전통적 무역 구제 조치

-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조치

■ 대통령 권한 수입 규제 조치

-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 1974년 통상법 301조

■ 동맹국과 협력 강화

- EU · G7에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



■ 전통적 무역 구제 조치

-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조치
- 보조금 조사 확대



■ 전통적 무역 구제 조치

- 멕시코, 태국, 인도, 브라질 등은 중국산 과잉 철강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 관세 부과 · 기존 관세 인상 등으로 대응
- 튀르키예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모니터링 · 국제사회 협력 강화

- G7은 과잉생산의 잠재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WTO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합의



■ 보복조치

- 합법적 권리 · 이익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

■ 관세법 제정

- 중국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국가의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
- 중국의 정상적인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한 국가의 수입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

1. 미국

1) 전통적 수단인 무역구제 조치 활용

① 반덤핑 및 상계관세

□ 美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전 세계 수입 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신규 조사개시 건수가 급격히 증가³⁸⁾

○ 미국은 수입 상품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무역구제 수단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

– '23.10월~'24.4월 미국은 반덤핑 46건, 상계관세 26건의 신규 조사를 결정하였는데 이중 중국 대상 신규 조사가 총 12건(반덤핑 6건, 상계관세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8건), 인도네시아(4), 베트남(4) 순

〈표4.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 현황〉

품목명	반덤핑 조사개시일	상계관세 조사개시일
알루미늄 압출재(Aluminum Extrusions)	'23.10.24.	'23.10.24.
특정 종이 접시(Certain Paper Plates)	'24. 2.14.	'24. 2.14.
유리와인병(Certain Glass wine Bottles)	'24. 1.18.	'24. 1.18.
알루미늄 평판 인쇄판(Aluminum Lithographic Printing Plates)	'23.10.18.	'23.10.18.
2,4-디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2,4-Dichlorophenoxyacetic Acid)	'24. 4.23.	'24. 4.23.
에폭시 수지(Epoxy Resins)	'24. 4.23.	'24. 4.23.

자료: 한국무역협회, ITC

주: '23.10월~'24.4월 기준

② 세이프가드

□ (철강) 미국은 자국의 철강산업이 글로벌 과잉생산 및 저가 철강 수입 증가, 생산력 저하 등에 따른 경쟁력 하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자 수입 철강에 대해 3년간 8~3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02.3.5.)³⁹⁾

38) 오세화(2024.4.25.), “미국의 대선 정국 보호주의 조치 증가 현황”, 워싱턴 통상정보, 한국무역협회.

39) 99년 이후 '02년까지 31개의 미국 철강 회사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된 이후 이듬해 12월 종료될 때까지 미 철강산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통합을 거쳐 운영됨. 김홍률(2002.4.),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주요 내용과 평가”, 세계경제 Focus, KIEP; Inside U.S. Trade(2002.3.5), “Gephardt Says Bush Steel Decision Not Enough”, Inside U.S. Trade.; George W. Bush White House Archives(2003.12.4.), “President's Statement on Steel”, The White House.

- 미국 상무부는 글로벌 과잉생산*은 전 세계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에 기인하며, 과잉생산으로 수입량이 증폭하고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 등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⁴⁰⁾
 -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중국을 비롯한 EU, 대만,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한국 등에 적용됐고 NAFTA 회원국 및 아르헨티나, 태국 등 소규모의 철강을 수출국가는 제외
- (태양광) 미국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저가 중국 태양광 제품으로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게 되자 수입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18.1.22.)하였으며 '22년 업계의 요청으로 4년 연장⁴¹⁾
 -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해왔으나 중국 생산업체들이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여 우회하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⁴²⁾

2) 국가안보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 :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 '18년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외국산 수입품(철강 25%, 알루미늄 10%)에 추가 관세를 부과('20년 파생상품으로 범위 확대)하였으며 이후 동 조치를 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
 - 급격한 수입 상품 증가와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능력 확대는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232조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⁴³⁾
 - 주요국들의 철강 생산능력 증가, 세계수요 침체, 미국 철강 시장의 개방성 등으로 수입량이 국내 수요의 30%를 상회하여 미국의 철강 업체들은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시설을 폐쇄·감소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에 직면
 - (트럼프 행정부) 대부분의 미국 무역파트너 국가에 철강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한국,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별도의 쿼터를 합의하여 대상에서 제외
 - 캐나다·멕시코와는 3국 공동성명서를 통해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조치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덤핑 방지, 우회수출 제한, ▲교역 모니터링·협업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19.5.17.)⁴⁴⁾

40) OECD는 '85년~'99년 글로벌 철강 생산능력과 과잉생산이 증가하였는데 세계 철강 과잉생산은 2억 7,500만 톤으로 총 생산량의 1/3을 초과한다고 추정. Wiley Rein LLP(2013.7.), *Government Intervention and Overcapacity: Causes and Consequences for the Global Steel Industry*, Wiley Rein LLP.

41) USTR(2018.1.22.), "President Trump Approves Relief for U.S. Washing Machine and Solar Cell Manufacturers", USTR.

42) USTR, "Section 201 Cases: Imported Large Residential Washing Machines and Imported Solar Cells and Modules", Fact Sheet, USTR.

43) USDOC(2018), *The Effect of imports of steel on the national security, An investigation conducted under section 223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USDOC.

-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32조 조치를 유지하되 EU, 일본, 영국과 232조에 따른 관세를 관세할당제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보복관세 철폐, ▲과잉생산 및 온실가스 배출 문제 해결, ▲교역·시장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에 합의⁴⁵⁾

〈참고1. 미국의 232조 조치〉

-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상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고율 관세부과, 수입량 제한(쿼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⁴⁶⁾
 - 대통령에게 발동 권한을 부여하며, 적용 범위가 넓고 조치의 실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
 - 232조는 수입상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고율관세, 수입량제한(쿼터),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⁴⁷⁾
 - 국가 경제력이 국가안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국가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다양한 경로에서의 요인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재량에 따른 포괄적인 조사 가능성을 시사⁴⁸⁾

3) 불공정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치 : 1974년 통상법 301조

- 최근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분야로 301조 적용을 확대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이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국 수입(약 180억 달러)에 대해 301조 관세를 인상할 것을 발표('24.5.14.)⁴⁹⁾
 - '18년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조사에 대해 발동된 조치를 재검토한 것으로 중국의 기술이전 및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전략적 부품에 적용
 - 바이든 행정부는 전미철강노동조합(USW) 등 5개 노동조합이 제출한 청원서에 따라 중국의 조선·해양·물류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24.4.17.) 추후 301조 적용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⁵⁰⁾

44) USTR(2019.5.17.), "Joint Statement by the US and Mexico on Section 232 duties on steel and aluminum", USTR.

45) Rachel Fefer(2022.4.1.),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In Focus, CRS.

46) *Ibid.*

47) *Ibid.*; 배찬권 외(2018.12.), 신보호주의 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KIEP.

48) 유지영(2017.12.), "국가안보 위협 논란에 따른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조치에 대한 통상법적 쟁점", 통상법률 138호.

49) The White House(2024.5.14.), "FACT SHEET: President Biden Takes Action to Protect American Workers and Businesses from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 The White House.

〈표5. '24.5.14. 발표된 301조 관세 인상 품목 및 인상률〉

품목		관세 인상률	적용연도
철강·알루미늄		0-7.5% → 25%	2024
반도체		25% → 50%	2025
전기차		25% → 100%	2024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7.5% → 25%	2024
	비전기차 배터리	7.5% → 25%	2026
	배터리 부품	7.5% → 25%	2024
핵심광물	천연흑연·영구자석	0% → 25%	2026
	기타 주요 광물	0% → 25%	2024
태양전지		25% → 50%	2024
선박·항만 크레인		0% → 25%	2024
의료제품	주사기·바늘	0% → 50%	2024
	개인보호장비	0-7.5% → 25%	2024
	의료용 고무·수술 장갑	7.5% → 25%	2026

자료: The White House(2024.5.14.)

〈참고2. 미국의 301조 조치〉

- 미국 통상법 301조에 따라 무역협정 상 미국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교역상대국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으로 미국 통상에 부담을 가하거나 제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원·USTR 재량에 의해 조사 개시⁵¹⁾
 - － 과거 미국은 교역 국가들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미국 수출품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301조를 광범위하게 사용해왔으나 이후 WTO 분쟁해결제도가 설립되면서 301조 적용이 축소⁵²⁾
 - 조사 결과 긍정 판정이 날 경우 USTR은 교역상대국의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보복조치*를 발동 가능하며 관세 연장을 요청받아 해당 사건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4년 후 자동 종료되며, 종료된 301조 조치는 복원될 수 있음
 - * ▲관세·수입제한, ▲무역협정 중단·철회, ▲무역에 부담을 주는 행위 제거 등 해당국가가 미국 통상에 부과하는 부담제한에 상응하는 수준의 조치

50) The White House(2024.4.17.),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New Actions to Protect U.S. Steel and Shipbuilding Industry from China’s Unfair Practices”, The White House.
51) USTR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경우 모든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나, 조사 개시 전 관련 이해관계자 및 외국정부와의 협의 필요. 무역협정 위반과 관련된 경우 관련 외국정부 및 관련 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고 WTO 등 공식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52) CATO(2022.6.), *Unfair Trade or Unfair Protection? The Evolution and Abuse of Section 301*, CATO Institute; Andres B. Schwarzenberg(2024.5.13.),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In Focus, CRS.

2. EU

1)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활동

□ 수입 상품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적용

-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조사와 달리 반보조금 조사는 국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될 수 있어 EU는 주로 반덤핑조치를 활용⁵³⁾

－ '22년 기준 EU는 21건의 반보조금 조치와 117건의 반덤핑 조치를 발동

□ '22년 대중국 무역적자(약4,000억)를 기록한 가운데 저가 중국 전기차 수입이 급증하자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직권으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하고 잠정상계관세 부과를 결정

- EU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본 저가 전기차가 EU 시장 질서를 왜곡시켜 EU 산업에 피해를 야기한다고 주장

－ 유럽 생산 전기차보다 20%가량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이 급증*했으며 '30년까지 중국과의 경쟁으로 EU 자동차 산업은 연간 70억 유로 이상의 순이익 손실을 예상⁵⁴⁾

* EU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율은 1%에서 8%로 급증하였고 '25년에는 1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관세(트럼프27.5% → 바이든100%)를 부과하고 IRA 등 친환경 무역 장벽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EU는 비교적 낮은 관세(10%)를 부과

- 일반적으로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역내 생산의 25% 이상을 점유하는 업계가 제소하면 개시되나 증거가 충분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조사기간은 개시일로부터 최대 13개월 소요

-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를 7월 4일 부과함에 따라 동 조치가 양측의 무역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

* 제조사별 잠정상계관세율은 BYD 17.4%, Geely 19.9%, SAIC 37.6%, 조사 협조 업체 20.8%, 조사 비협조 업체 37.6% 등⁵⁵⁾

－ 프랑스 정부 및 자동차업체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를 EU 집행위에 지속 압박·지지해 왔으며, 독일*은 중국의 보복 조치를 우려하여 반대해옴⁵⁶⁾

53) Gisela Grieger(2023.10.), *EU anti-subsidy probe into electric vehicle imports from China*, PE754.553, European Parliament.

54)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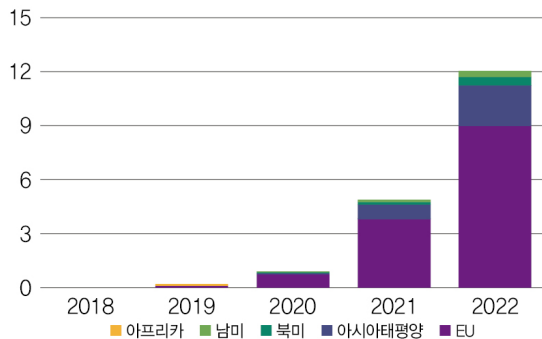
55) Philip Blenkinsop and Charlotte Van Campenhout(2024.7.5.), "China-built EVs hit with duties in biggest EU trade case yet", *Reuters*.

* 중국은 독일의 '22년 최대 수출국(205억 달러)으로,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의 '23.4분기 중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고 있어 상계관세 조치에 부정적

- 세계경제연구소(KIEL)는 중국산 전기차에 20%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25%(약 38억 달러) 감소할 것이며 EU 역내 생산 전기차 판매는 3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평가⁵⁷⁾
- Rhodium Group은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10%의 관세가 15~30% 범위로 결정될 것으로 보면서 중국 전기차가 EU 역내로 쇄도하는 것을 막으려면 4~50% 범위여야 된다고 지적⁵⁸⁾

〈그림28. '18-'22년 대세계 중국 전기차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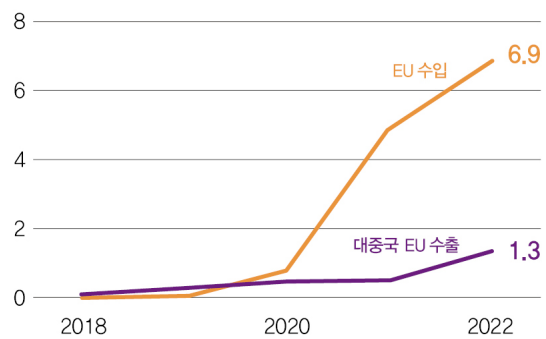
(단위: 10억 유로)



자료: Gisela Grieger(2023.10.)

〈그림29. '18-'22년 EU·중국 전기차 무역량〉

(단위: 10억 유로)



자료: Gisela Grieger(2023.10.)

□ EU는 전기차에 이어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의료기기, 주석 도금 강판에도 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착수하여 대중국 견제를 강화⁵⁹⁾

- EU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신규 조사를 착수하고, 기존의 조치를 연장하는 등 반덤핑조치를 강화
 - 최근 집행위는 유럽철강협회 청원에 따라 중국산 주석으로 도금되거나 코팅된 철·강판의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24.5.16.)
 - 집행위는 기존의 중국과 대만산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 및 파이프 용접피팅(SSTPF)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5년 연장하였으며, 중국 업계가 반덤핑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등에서 조립 및 가공 작업을 행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도 고율관세를 부과⁶⁰⁾

56) Barbara Moens, Joshua Posander and Nicholas Vinocur(2023.9.11.), "French puts screws in EU chief to hit back against Chinese electric vehicles", *Politico*.

57) Moritz Schularick, Julian Hinz and Mathias Rauck(2024.5.31.), *EU tariffs against China redirects trade of EVs worth almost USD 4 billion*, KIEL Institute.

58) EU는 평균 19%의 상계관세를 부과. Gregor Sebastian(2024.4.29.), *Ain't No Duty High Enough, China*, Rhodium Group.

59) Reuters(2024.5.17.), "EU probes into Chinese subsidies and imports", *Reuters*.

- 집행위는 덤핑·상계관세 조사 외에도 역외보조금규정(FSR)*에 근거한 보조금 조사를 추가

* 2.5억 유로 이상 공공조달사업 입찰에 참여한 기업에게 최근 3년간 수령 한 역외보조금 내역을 보고 하도록 의무화

- 입찰자에게 제공된 제3국 보조금이 EU 시장 및 입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면 입찰 참여 제한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조사 대상 기업이 사업 참여 계획을 철회하면 조사는 즉시 종료
- (태양광 패널) 루마니아의 110MW급 태양광 발전 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한 중국기업 2곳에 대해 불공정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대상기업의 사업 참여 철회로 조사 종료
- (풍력터빈)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5개 EU 회원국의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국 업체들의 역외보조금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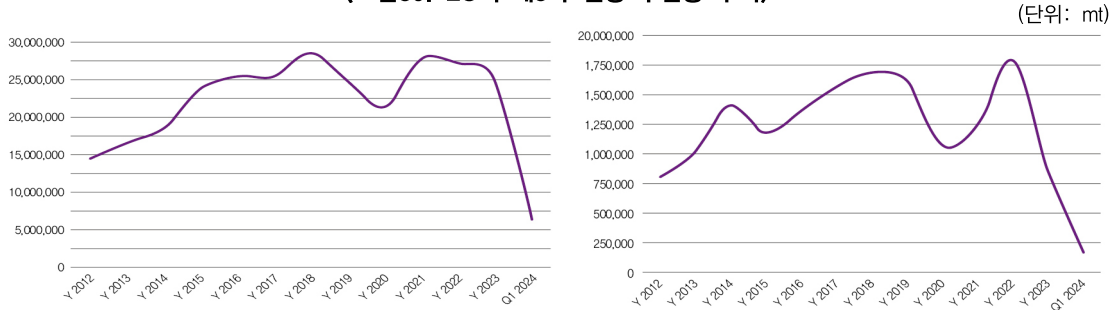
2) 세이프가드 조치

- 집행위는 '24.5월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응해 시행 중인 글로벌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18.7월 → '26.6월 말까지 연장

- 집행위는 글로벌 철강 시장의 지속적인 과잉생산과 특정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지속된 상황에서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던 철강제품이 EU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EU 철강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하여 직권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18.3.26.)⁶¹⁾

- EU는 관세율할당(TRQ)을 통해 26개 철강제품에 대해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

〈그림30. EU의 제3국 철강 수입량 추이〉



자료: Eurofer(2024.7.)⁶²⁾

주: 스테인리스강 제외

자료: Eurofer(2024.7.)

주: 스테인리스강 포함

60) European Commission(2023.4.14.), "EU renews anti-dumping measures on stainless steel fittings from China and Taiwan for five years, extends measures to Malaysia", European Commission.

61) European Commission(2018.3.26.), *Notice of initiation of a safeguard investigation concerning imports of steel products*, (2018/C 111/10), European Commission.

62) Eurofer Interactive chart, Imports, <https://www.eurofer.eu/statistics/trade-statistics/imports>.

3. 신흥 국가 대응

- (G7)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과잉생산의 잠재적·부정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세계무역기구(WTO)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할 것을 발표⁶³⁾
 - 중국의 노동자·산업·경제 회복력을 저해하는 비시장 관행의 광범위한 사용에 우려를 표명하며 파트너·제3국, 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할 것을 발표
- (멕시코) 중남미 주요 철강 생산국 중 하나인 멕시코는 철강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 중국산 철강 못(31%)·철강 공(3.68~12.35%)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24.3월)하고 중국을 포함한 FTA 비체결국에 대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5% 또는 35%로 인상('24.4월)
 - '23년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된 멕시코는 미국의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 인상 요청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임⁶⁴⁾
- (태국) 아세안 2대 철강 소비국인 태국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저가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고려
 - 태국 대외무역부는 '23년 중국의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후 조사를 진행 중⁶⁵⁾
 - － 태국 열연코일 철강업체들(사하비리야 스틸, G스틸, GJ스틸)이 제품을 개조하여 기존 반덤핑 관세를 회피한 17개의 중국 철강 제조업체들을 제소하며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태국 대외무역부는 중국 제조업체에서 제품 개조 및 가격 덤핑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힘
 - 태국은 저가, 저품질 제품의 유입을 막고 태국 경제에 중요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⁶⁶⁾ 1,500바트(미화 40달러) 미만의 중국 제품에 대해 7%의 부가가치세 부과를 검토 중

63) NHK(2024.5.26.), "G7 finance chiefs express concerns about China's industrial overcapacity", *NHK World Japan*.

64) Kandy Wong(2024.3.19.), "With 'made-by-China' under US pressure, Mexican trade probes spark concerns over curbs", *SCMP*.

65) 조사는 '24.6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4.7월에도 조사가 진행 중. <https://thaitr.dft.go.th/en/search/AC1001>.

66) Anh Pham Ngoc, Ayman Falak Medina(2024.4.16.), "Thailand Contemplates Protective Tariffs on Chinese Imports Amidst Surging Trade Deficit", *Asean briefing*.

- (인도) 경제개발 정책으로 “메이드 인 인디아”를 내세운 인도는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 조치 시행 중⁶⁷⁾
 - '23년부터 중국 제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연장 혹은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
 - '18년부터 부과해 온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23년 9월부터 5년간 연장하였으며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로드 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kg당 0.23달러에서 1.71달러로 7.4배 인상
- (브라질)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일원이자 대표적인 친중 국가 중 하나인 브라질은 자국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착수⁶⁸⁾
 -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철강부터 화학제품, 타이어 등 6개 분야에 걸쳐 반덤핑 조사를 개시
 - '23년 중국산 철강 수입은 50% 증가한 반면 브라질 국내 생산은 6.5% 감소했는데, 철강은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이기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됨⁶⁹⁾
 - '24.2월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9%~14.4%로 인상, 4월 11개 압연강판 제품에 쿼터제를 도입해 쿼터를 초과한 수입분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 계획 발표
- (튀르키예)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차량에 대해 관세 부과 예정
 - 7월 7일부터 중국산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추가 40% 관세 부가가 발표됨
 - 추가 관세는 차량당 최소 7,000달러로 설정되었으며, 이 외에도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서 중국산 자동차의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⁷⁰⁾
 - '23년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유지관리에 대한 기타 규정 도입에 이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보호를 위한 조치

67) 김겨레(2024.9.12.), “‘中 견제’ 인도, 중국산 철강에 5년간 반덤핑 관세”, 이데일리.

68) 변수연(2024.3.26.), “‘親中’ 브라질도 중국산에 관세장벽”, 서울경제.

69) 김리안(2024.3.18.),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으로’…브라질마저 中반덤핑 조사”, 한경글로벌마켓.

70) Hurriyetdailynews(2024.6.9.)“Türkiye imposes additional 40 percent tariff on Chinese cars”, Hurriyetdailynews.

4. 중국의 대응

1) 보복조치

□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동맹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이에 맞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시사

○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은 양국의 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경제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비판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⁷¹⁾

－ 미국·EU의 무역전쟁에 대응하여 미국, 유럽, 일본 및 대만에서 수입되는 특정 플라스틱 원료를 대상으로 덤핑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24.5.19.)

□ 중국은 과거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및 232조 조치를 WTO에 제소하고 미국 수입상품에 대해 보복조치를 부과

○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⁷²⁾ 232조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산 농축산물 등 128개 품목*에 대해 15~25%의 추가 관세를 부과('18.4.2.)

* 보복 대상 농축산물은 당시 트럼프 前대통령을 지지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으로⁷³⁾ 신선과일, 건조 과일, 견과류, 와인, 강판, 돈육, 재활용 알루미늄 등

□ 중국 정부는 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잠정상계관세 부과결정을 강력히 비난하며 보복조치 가능성을 시사

○ 중국은 EU가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한 바 있으며, EU가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착수한지 3개월 후 유럽 주류 생산업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발표하며 맞대응

－ 상무부는 특정 국가 및 증류소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EU산 증류 와인으로 만든 주류”라 하여 사실상 EU 전기차보조금 조사결정에 강경한 지지를 한 프랑스*를 겨냥

* 브랜드는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증류주로 프랑스의 브랜드가 수입의 99%를 차지⁷⁴⁾

71) Peter Hoskins(2024.5.20.), “China hits back at US and EU as trade rows deepen”, BBC.

72) 윤기관(2002.6.), “미국의 수입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발동과 한국의 대미통상정책”, 경제경영연구 제25권 제1호.

73) 제현정·정혜선(2018.7.26.), EU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등 주요국 동향 및 시사점, 통상리포트 20호, 한국무역협회.

74) Camille Gijus(2024.5.23.), “French cognac makers: Do not sacrifice us in EU-China trade war”, Politico.

- 중국은 EU에 항공 및 농업부문에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경고⁷⁵⁾
 - (항공) 중국 시장에서 지배적인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를 겨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1년 중국은 중국의 항공사가 EU의 탄소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에어버스를 불매할 것을 위협한 바 있음⁷⁶⁾
 - (농업) 중국은 EU 전체 농식품 무역의 6.4%를 차지하는 EU의 3번째로 큰 농식품 수출시장국이어서 중국의 보복 시 상당한 부담 발생

2) 관세법 제정

□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中华人民共和国关税法)”을 제정 ('24.12.1. 시행 예정)

- 관세법은 기존의 ‘수출입관리조례(’23년)’ 및 “대외무역법(’04년)”과 일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이 대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맞대응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⁷⁷⁾
 - 중국과 약속한 최혜국대우·관세 혜택 미이행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국가의 상품에는 그와 동등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을 시사
 - 국가가 국제조약·협정에 위반하여 중국의 정상적인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 금지·제한, 관세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를 허용

75) Camille Gijs, Nicholas Vinocur(2024.5.30.), “China takes aim at EU’s planes and farmers as trade war brews”, *Politico*.

76) BBC(2012.3.8.), “China ‘blocks Airbus deals’ in EU carbon levy spat”, *BBC*.

77) 세계법제정보센터(2024.5.17.), “중국, 관세법 제정”, 중국 입법동향, 세계법제정보센터; 박진희(2024.5.20.), “중국, 신규 관세법에 대중국 관세 부과 행위 맞대응 명시”, 지역연구 공동 동향 세미나 제8호, KIEP.

3 평가 및 시사점

1) 중국의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심화

□ 과거 철강 및 일부 전통 제조업에 국한되었던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급속히 성장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소위 ‘3대 新산업’ 분야로 확대

○ 독일 씹크탱크 세계경제연구소(KIEL)는 중국 정부는 EU 및 OECD 회원국 대비 최소 3배~최대 9배 까지 높은 산업보조금을 지급하며, 이러한 정부 보조금으로 중국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해외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⁷⁸⁾

– ‘19년 중국의 산업보조금은 약 2,210억 유로로 중국 GDP의 1.73%에 달하며 ‘22년에는 5,260개 상장 기업의 99% 이상이 직접 보조금을 수여한 것으로 파악됨

○ (전기차·배터리) 중국의 배터리 산업은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과 함께 성장하였는데,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수요시장이 형성되고, 보조금 등 지원정책을 통해 공급 시장까지 육성⁷⁹⁾

– 일찍이 중국은 내연 자동차보다 전기자동차 개발에 주력하였는데, 특히 전기버스, 전기 이륜차 개발에 집중하면서 전기차 제조 전략 및 배터리 기술을 발전⁸⁰⁾

–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중국 내 배터리 수요가 확대되면서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수요국이자 생산 국가로 부상

– 최근 BYD(‘20년 2.2억 유로→‘22년 21억 유로), 밍양(풍력터빈, 2천만 유로→5천만 유로) 등 녹색 기술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이 확대되었으며, 간접 지원을 포함하면 이 기업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더욱 클 것으로 분석⁸¹⁾

* 중국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일부 중국 산업의 과잉 확장으로 인한 위험을 우려하여 CATL의 확장 속도를 억제하라고 경고하고 지급 예정 보조금을 삭감(50억 달러→10억 달러)한 바 있음⁸²⁾

78) Frank Bickenbach, et al.(2024.4), *Foul Play? On the Scale and Scope of Industrial Subsidies in China*, Policy Brief, KIEL.
79) 조은교(2023.4.24.).

80) 버스는 승용차 보다 무겁고, 많은 승객을 태우며 매일 약 18시간 운행되기 때문에 더 높은 배터리 전력 및 저장 기술을 요구하며 이륜차는 자동차보다 더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난 배터리를 필요로 함; Chengyi Lin(2024.1.3.), “3 Drivers of China’s Booming Electric Vehicle Market”, *Operations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81) Frank Bickenbach, et al.(2024.4).

82) Edward White, Cheng Leng and Clair Bushey(2024.4.4.).

- (태양광) 국영기업(2010년대, 약 280억 달러) 뿐만 아니라 비국영기업('23년, 진코솔라 1억 6,560만 달러 등)에도 직간접보조금을 제공해왔으며 '23년에는 태양광 산업에 1,3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태양광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⁸³⁾
 - 중국의 태양광 제조 확장은 폴리실리콘에 대한 높은 마진, 기술 업그레이드 및 해외 시장에서의 현지 제조 개발에 의한 것이며 '23년~'26년 전 세계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및 모듈 제조 능력의 80% 이상을 보유할 전망
 - 중국 생산 태양광 모듈은 유럽 생산보다 50%, 미국보다 65%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이는 규모의 경제 달성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평가

2)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중국의 반응

□ 미국과 EU는 중국 과잉생산 능력과 수출 확대로 자국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

- (미국) 중국 과잉생산 능력이 미국의 청정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
 - 엘런 장관은 중국의 직간접적인 정부 보조금으로 중국 내수·세계 시장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생산능력이 초래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가격하락, 대량 수출, 공급망의 과집중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 회복력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⁸⁴⁾
- (EU)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하면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막대한 보조금 및 지원정책을 통해 상품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주장⁸⁵⁾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중국 과잉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232조 및 301조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추가 조치가 미국 경제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견해와 중국 수출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견해가 공존

- 바이든 대통령은 301조에 근거하여 배터리, 태양전지, 핵심광물,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관세를 인상하였는데 이는 선거를 앞두고 경합주 유권자들의 표를 인식한 것으로 평가⁸⁶⁾

83) Sonia Kerr and Kevin Baxter(2023.11.7.), "China to hold over 80% of global solar manufacturing capacity from 2023–26", WoodMackenzie; Andrew Rechenberg(2024.2.4.), "China's Solar Firms Are Surviving on CCP Subsidies", Coalition for a Prosperous America.

84) U.S. Mission China(2024.4.6.), "Remarks by secretary of the treasury Janet L. Yellen at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event in Guangzhou, PRC", U.S. Embassy&Consulates In China.

85) European Commission(2023.9.13.), "2023 State of the Union Address by President von der Leyen", European Commission.

86) Michelle Jamrisko(2024.5.16.), "Brainard Says Tariffs Needed to Avoid 'China Shock' in US", *Bloomberg*; Bredean Murray(2024.6.13.), "Why Biden is Escalating Trump's China Tariffs", *Bloomberg*.

- '19년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맹렬히 비난하며 대통령 당선 시 관세를 철폐할 것을 공약한 바 있으나 트럼프의 관세를 유지·강화⁸⁷⁾
 - 대중국 관세 조치로 중국 무역 보복을 할 경우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 등 경합주에서 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져 선거에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제기⁸⁸⁾
 -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규모 과잉생산 능력으로 발생하는 덤핑으로부터 미국 제조업과 근로자 보호하기 위해 301조 관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중국 관세는 국내 생산을 자극하고 미래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며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리쇼어링 도구라는 입장⁸⁹⁾
- 미국의 232조 관세는 공급과잉에 대한 직접적 해결보다는 궁극적으로 중국산 수입 억제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견해도 존재⁹⁰⁾
- 일부 경제학자들은 관세는 ▲생산비용 증가, ▲관련 산업 일자리 감소, ▲소비자의 가격 인상, ▲수출 성장 감소 등을 초래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 '18년 트럼프 대통령의 232조 관세로 다운스트림 제조업에서 75,000개의 일자리가 손실되었고 관세가 1% 증가할 때마다 수출성장률이 0.11% 감소하였으며 철강 가격 상승으로 철강 기업의 세전 수입(24억 달러)과 소비자 비용(56억 달러)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⁹¹⁾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2조 및 301조 관세가 미국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수입 감소, 생산 및 가격 증가로 많은 다운스트림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표('23.3.15.)⁹²⁾
 - 232조 관세로 철강·알루미늄의 ▲수입감소(철강24%, 알루미늄31%), 가격인상(철강2.4%, 알루미늄 1.6%), 생산량 증가(철강1.9%, 알루미늄3.6%)가 발생하였으나 ▲다운스트림 산업의 가격이 인상(평균 0.2%)되고 생산량이 감소(평균 0.6%)
 - 301조 관세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13%)하고 미국 생산 가치가 증가(0.4%)하였으며 가격이 인상(0.2%)

87) Selina Wang(2024.5.15.), "Biden once slammed Trump's China tariffs, Now he's building on them: Analysis", *ABC News*.

88) Brendan Murray(2024.5.16.), "How Biden's China Tariffs Could Backfire on Swing-State Workers", *Bloomberg*.

89) CPA newsroom(2024.5.16.), "Yellen says China tariffs won't cause consumer price increase", CPA.

90) Alex Durante(2022.9.20.), "How the Section 232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Harmed the Economy", Tax Foundation;

Kadee Russ and Lydia Cox(2020.2.6.), "Steel Tariffs and U.S. Jobs Revisted", ECONOFACT.

91) Alex Durante(2022.9.20.).

92) USITC(2023.3.15.), "Certain effects of section 232 and 301 tariffs reduced imports and increased prices and production in many U.S. industries", USITC.

□ (EU) 중국을 “경쟁국”인 동시에 “협력 및 협상 파트너”로 인식하며 미국과는 다른 측면에서 대중국 정책을 모색

- 중국은 EU의 중요한 교역 대상국으로 양측은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약속⁹³⁾
 - 2019 중국전략 문서는 중국을 경제적 목표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 이해관계의 균형이 필요한 “협상 파트너”, 기술 패권을 추구하는 “경제적 경쟁국” 및 기존 거버넌스 대체를 추구하는 “체계적 경쟁국”으로 간주
- EU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통상정책 기조하에 미국과 최대한 협력하되 대중국 정책에 자율성을 가짐
 - 자유무역과 다자체제 등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술·글로벌 공급망 안보, 공정 경쟁 등 국제 현안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추구하며 자율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한다는 전략
 - 미국의 대중국 인식·입장의 차이, 대중국 경제 관계 등을 여러 요소를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

□ (중국) 중국은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의 과잉생산에 대한 서방 국가의 비난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보호주의라고 비판⁹⁴⁾

- 중국이 신에너지 산업에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인한 것이 아닌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공급망 개선 및 시장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미국 및 EU의 주장에 반박
- 상무부는 신에너지 상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과잉생산이 아닌 오히려 부족한 상태라고 강조하며,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은 고품질 생산능력을 지속 제공하여 세계 녹색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장⁹⁵⁾

3) 한국에 미칠 영향 및 시사점

□ 미국은 향후 다양한 산업에서의 대중국 제재를 위해 301조를 확대 적용할 가능성

-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만으로는 불공정 수입 상품으로부터 미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강조하며 제재 강화를 시사⁹⁶⁾

93) European Commission and HR/VP contribution to the European Council(2019.3.12.), *EU-CHINA - A Strategic outlook*, JOIN(2019) 5 final, European Commission.

94) 상하이밍(2024.5.23.), “중국 신에너지 과잉생산? 결코 사실이 아니다”, 아시아투데이 기고문; CSF(2024.4.11.), “중국 상무부장 EU 방문...미국, EU의 ‘중국 과잉 생산론’은 근거 없는 주장”, CSF 중국전문가포럼.

95) 뉴스1(2024.4.25.), “중국, ‘과잉생산 비난에 오히려 생산부족...시장 현실 고래해야’”, 동아일보.

96) USDOC(2017.4.21.), “Frequently Asked Questions: Steel AD and CVD orders”, USDOC.

-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로 불공정하게 거래되는 특정 철강 제품을 규제할 수 있으나 대규모 글로벌 과잉생산 및 글로벌 해외 경쟁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광범위한 구조적·경제적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

□ 쿼터가 있는 철강을 제외하고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에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대두

- PIIE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 이전 미국 수입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차지한 중국 외 제3국의 경우, 미국의 대중 관세가 1% 인상할 때 수입이 0.0454% 증가⁹⁷⁾

- PIIE는 미중 관세로 한국산 수입이 제품 품목별로 금속(약1.8%), 화학품(약0.9%), 전자장비(약0.4%), 운송장비(약0.15%) 증가할 것으로 추정*

* 품목별로 금속(HS72-83), 화학품(HS28-38), 전자장비(HS85), 운송장비(HS86-89)로 분류하였으며, 관련 HS코드는 철강(72), 배터리(85), 전기차(87), 태양광(85), 석유화학(38)

□ EU가 중국 전기차에 이어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의료기기 등으로 보조금 조사를 확대하고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분야 한국 기업들의 반사이익 가능성⁹⁸⁾

- 전기차 산업의 경우 미국에서는 중국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고 IRA 등의 규제가 있어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한 반사이익이 낮은 반면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의 점유율이 커 EU의 고율관세 부과 시 한국 전기차가 수혜 볼 가능성⁹⁹⁾

- EU의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된다면 추가적인 혜택도 발생 가능

□ 중국산 저가 공급과잉과 수혜국의 무역장벽 확산은 공급망 전반에 리스크를 가중시켜 우리 기업에도 부담

- 과거 미국의 세이프가드 및 232조 조치에 대응하여 주요국이 글로벌 보복 및 무역구제조치를 시행 하면서 글로벌 무역장벽이 확산¹⁰⁰⁾

-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한국의 전체 대미 수출액의 약 70%가 영향을 받고 약 20%의 철강재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던 바 있고¹⁰¹⁾, 232조 조치도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을 제한

97) Mary E. Lovely, David Xu and Yinhan Zhang(2021.7.), *Collateral Benefits? South Korean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US-China Trade War*, Policy Briefs, PIIE.

98) 김진원(2024.5.22.), “美·中 ‘보복 관세’에 현대차 반사익…배터리·태양광도 기회 오나”, 한국경제.

99) 강기현(2024.5.14.), “미국 ‘EU 등 중국 전기차 관세 올리면 한국 반사이익 크다’”, 중앙일보.

100) Marin Weaver, *Section 232 and 301 trade actions in 2018, Shifts in U.S. Merchandise Trade, 2018*, USITC.

〈참고3, 미국의 공급과잉 조치에 따른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 사례〉

① 세이프가드 조치(2002년)

-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규제대상국들은 WTO 제소 및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으며, 對美 철강제품의 유입을 피하기 위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면서 글로벌 통상 마찰이 촉발¹⁰²⁾
 - (WTO 제소) EU, 한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 스위스, 뉴질랜드, 브라질 등의 국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
 - (세이프가드 조치) EU(15개 철강제품)와 중국(17개 철강제품)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고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과 일본, 캐나다 등도 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¹⁰³⁾
 - (보복조치) ▲EU는 미국의 철강·의류·과일 등의 항목에 최대 100%, ▲중국은 폐지, 콩기름 등 3개 수입품목에 25%, ▲일본은 미국산 철강에 100% 보복관세 등을 부과할 것을 통보¹⁰⁴⁾

② 232조 조치(2018년)

- 미국의 철강 상품에 대한 232조 조치도 주요 규제국들의 WTO제소, 보복관세 및 세이프가드 발동 등 통상 마찰로 이어짐
 -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러시아 등은 미국의 232조 조치를 WTO에 제소하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
 - EU는 미국의 232조 조치에 따른 무역전환(trade diversion)¹⁰⁵⁾ 효과로 인해 EU로의 철강 제품 수입이 급증하는 등 자국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¹⁰⁶⁾

-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신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구제조치가 과거 세이프가드 및 232조 조치와 같이 모든 국가를 상대로 취해지고, 타 국가에서도 대응조치가 도입될 경우 한국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 불가피

- － 미국을 필두로 EU, 인도, 칠레, 브라질, 멕시코 등 주요국들이 중국산 저가 상품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 규제 조치를 고려¹⁰⁷⁾

101) 김홍률(2002.4.).

102) European Commission(2023.11.10.), "US Steel Safeguard Measures: Questions & Answers", European Commission.

103) 신치영(2002.11.4.), "철강 '세계대전'으로 가나", 동아일보.

104) 윤기관(2002.6.); 조선일보(2002.5.16.), "[일본] 미국産 철강제품에 100% 보복관세", 조선일보.

105) 미국은 232조 조치에 따라 약 1,300만 톤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계산했는데, 이는 EU 소비량의 7%에 해당하는 수치임. EU는 미국으로 수출되지 못한 물량이 그 대안으로 EU 시장에 전환되어 들어오게 된다면 자국 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 (자료: EU 세이프가드 예비 판정문).

106) European Commission(2018.7.17.),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18/1013, 17 July 2018, imposing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s with regard to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European Commission.

107) The Economist(2024. 5. 23.), "Brazil, India and Mexico are taking on China's exports", *The Economist*.

-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향후 미국과 EU가 새로운 철강협정(GSSA)을 체결할 경우 상당한 영향 발생 가능
 - GSSA(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um)는 미국·EU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클럽으로 ▲기후변화 문제, ▲철강·알루미늄 무역분쟁 해결, ▲비시장 경제의 과잉 생산 능력 대응 등 다중 목표를 추구(협상 기한 '25.3월 말)
 - 미국은 회원국 및 비회원국으로 구별되고 상품의 탄소집약도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22.12월)하여 향후 한국이 GSSA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고율관세가 부과될 가능성

[표]

1. 국가별 철강 생산량 추이 (p.3)
2. 중국 철강 생산량 및 점유율 (p.4)
3. 전세계 전기차(BEV+PHEV) 판매량 (p.9)
4.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 현황 (p.20)
5. '24.5.14. 발표된 301조 관세 인상 품목 및 인상률 (p.23)

[그림]

1. 전 세계 및 지역별 철강 생산능력 추이 (p.1)
2. 글로벌 철강 생산량 및 가동률 (p.2)
3. 중국 철강 생산량 및 시장 점유율 (p.4)
4. 중국 철강 생산량 및 점유율 (p.4)
5. 중국 철강(HS 72) 순수출 추이 (p.5)
6. 글로벌 이차전지 수요 및 공급 전망 (p.6)
7. 이차전지 공급과잉율 (p.6)
8. 국가별 이차전지 수요 (p.7)
9. 국가별 이차전지 생산능력 (p.7)
10. 글로벌 이차전지 수요 및 중국 공급 (p.7)
11. 중국 이차전지 수요 및 공급 (p.7)
12. 2025년까지의 기업별 이차전지 생산능력 (p.8)
13. 중국 정부 보조금 수여 기업 (p.8)
14. 중국의 월별 전기차 생산량('21-'23) (p.10)
15. 중국의 전기차 수출 추이 (p.11)
16. 중국의 대한국 전기차 수출 추이 (p.11)
17. 태양광 밸류체인 (p.12)
18. 중국의 신규 태양광 설비능력 (p.12)
19. 태양광 설치량과 중국의 모듈 생산능력 (p.12)
20. 중국 폴리실리콘 가격 (p.13)
21. 웨이퍼 가격 (p.13)
22. 모듈 가격과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설비가동률 (p.13)
23. 6대 석유화학 제품군에서의 공급과잉 (p.15)
24. 글로벌 에틸렌 생산능력, 수요 (p.16)
25. 주요 석유화학제품 글로벌 증설 중 중국 비중(2020-2022) (p.16)

-
26. 지역별 석유화학 생산능력 (p.16)
 27. 중국 에틸렌 수요와 공급 (p.17)
 28. '18-'22년 대세계 중국 전기차 수출 (p.25)
 29. '18-'22년 EU·중국 전기차 무역량 (p.25)
 30. EU의 제3국 철강 수입량 추이 (p.26)

참고자료

[국내 문헌 · 기사]

강기현(2024.5.14.), “미국 “EU 등 중국 전기차 관세 올리면 한국 반사이익 크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9104#home>

강기현(2024.5.17.), “美, 중국 때리자 한국이 운다…‘강 밀어내기’에 업계 직격탄”,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9890#home>

강정화(2024), “2023년 하반기 태양광산업 동향”, VOL.2024-반기-1 인프라금융부, 한국수출입은행.

김겨레(2024.9.12.), “‘中 견제’ 인도, 중국산 철강에 5년간 반덤핑 관세”,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28966635739464&mediaCodeNo=257>

김리안(2024.3.18.),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으로”…브라질마저 中반덤핑 조사”, 한경글로벌마켓.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86372i>

김지연(2024.3.25.), “中 태양광 업계, 공급과잉·가격경쟁에 연일 가격 폭락 “해외 공략도 난국””, Greenium.
<https://greenium.kr/news/31835/>

김진원(2024.5.22.), “美·中 ‘보복 관세’에 현대차 반사이익…배터리·태양광도 기회 오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266041>

김홍률(2002.4.),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주요 내용과 평가”, 세계경제 Focus, KIEP.

뉴스1(2024.4.25.), “중국, ‘과잉생산 비난에 오히려 생산부족…시장 현실 고래해야’,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425/124656814/1>

배찬권 외(2018.12.), 신보호주의 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KIEP.

변수연(2024.3.26.), “‘親中’ 브라질도 중국산에 관세장벽”, 서울경제.

산업통상자원부, e-나라지표: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석유화학분야)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44\(검색일:'24.7.17.\)](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44(검색일:'24.7.17.))

성동원(2023.12.28.),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3대 리스크 점검”, 2023 이슈보고서, 한국수출입은행.

성일만(2024.4.27.), “공급 과잉 중국 전기차, 공장 가동률 50%에도 가격 경쟁 가속”, 글로벌이코노믹.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4/04/202404270712529509da65389f94_1

세계법제정보센터(2024.5.17.), “중국, 관세법 제정”, 중국 입법동향, 세계법제정보센터.

박진희(2024.5.20.), “중국, 신규 관세법에 대중국 관세 부과 행위 맞대응 명시”, 지역연구 공동 동향 세미나 제8호, KIEP.

신치영(2002.11.4.), “철강 ‘세계대전’으로 가나”,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130963?sid=101>

싱하이밍(2024.5.23.), “중국 신에너지 과잉생산? 결코 사실이 아니다”, 아시아투데이 기고문.

CSF(2024.4.11.), “중국 상무부장 EU 방문...미국, EU의 ‘중국 과잉 생산론’은 근거 없는 주장”, CSF 중국전문가포럼.

오세화(2024.4.25.), “미국의 대선 정국 보호주의 조치 증가 현황”, 워싱턴 통상정보, 한국무역협회.

유지영(2017.12.), “국가안보 위협 논란에 따른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조치에 대한 통상법적 쟁점”, 통상법률 138호.

윤기관(2002.6.), “미국의 수입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발동과 한국의 대미통상정책”, 경제경영연구 제25권 제1호.

이진원(2024.2.5.),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 공습에 美·유럽 업체 생존 위기”, ESG경제.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765>

에너지경제신문(2024.1.30.), “중국, 재생에너지 설비 화력발전 추월... 한국에 크게 앞서”,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129010008327>

전유진(2023.11.13), “[정유/화학/에너지 전망] 이성과 감성 사이의 밀당”, 하이투자증권.

제현정·정혜선(2018.7.26.), EU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등 주요국 동향 및 시사점, 통상리포트 20호, 한국무역협회.

조선일보(2002.5.16.), “[일본] 미국産 철강제품에 100% 보복관세”,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2/05/16/2002051670360.html

조성호, 표태준(2024.3.24.), “‘싼게 비지떡 아냐’ 中 전기차 쾌속 질주...美·中 ‘차마겟돈’ 본격화”, 중앙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4/03/21/UZFQZ7S7IZGBTL6CEHWY5YST2M/>

조은교(2023.4.24.), “중국 배터리 산업의 발전전략과 전망”, INChinaBrief Vol.419, 인천연구원.

최재희(2024.3.20.),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연구 및 시사점”, 연구자료 23-12, KIEP.

홍유담(2023.3.20), “중국 석유화학 원료 자급률 확대…국내 업황부진 장기화”,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0126200002>

KOTRA 베이징무역관(2022.12.13.), “중국, 에틸렌 설비증설 가속화”, CSF 중국전문가포럼.
https://csf.kiep.go.kr/studyReportView.es?article_id=48420&mid=a203000000000

[해외 문헌 · 기사]

Bickenbach, Frank, *et al.*(2024.4.), *Foul Play? On the Scale and Scope of Industrial Subsidies in China*, Policy Brief, KIEL.

Blenkinsop, Philip and Charlotte Van Campenhout(2024.7.5.), “China-built EVs hit with duties in biggest EU trade case yet”, *Reuters*.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eu-imposes-duties-china-built-evs-leaving-four-months-talks-2024-07-04/>

CPA newsroom(2024.5.16.), “Yellen says China tariffs won’t cause consumer price increase”, *CPA*.
<https://news.bloomberglaw.com/banking-law/yellen-says-china-tariffs-wont-cause-meaningful-us-price-hikes>

Dempsey, Harry and Edward White(2023.9.4.), “China’s battery plant rush raises fears of global squeeze”,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b6038e51-7b5b-4f97-a5da-9202e71562fc>

Eurofer Interactive chart, Imports.
[https://www.eurofer.eu/statistics/trade-statistics/imports\(검색일:'24.7.17.\)](https://www.eurofer.eu/statistics/trade-statistics/imports(검색일:'24.7.17.))

Fefer, Rachel(2022.4.1.),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In Focus, CRS.

Hoskins, Peter(2024.5.20.), “China hits back at US and EU as trade rows deepen”, *BBC*.
<https://www.bbc.com/news/articles/cw004vvkj1xo>

Hurriyetdailynews(2024.6.9.), “Türkiye imposes additional 40 percent tariff on Chinese cars”, *Hurriyetdailynews*.
<https://www.hurriyetdailynews.com/turkiye-imposes-additional-40-percent-tariff-on-chinese-cars-197213>

IEA(2024), *Renewables 2023*, IEA.

Inside U.S. Trade(2002.3.5.), “Gephardt Says Bush Steel Decision Not Enough”, Inside U.S. Trade.
<https://insidetrade.com/content/gephardt-says-bush-steel-decision-not-enough>

Jamrisko, Michelle(2024.5.16.), “Brainard Says Tariffs Needed to Avoid ‘China Shock’ in US”,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5-16/brainard-says-tariffs-needed-to-avoid-new-china-shock-in-us>

Kerr, Sonia and Kevin Baxter(2023.11.7.), “China to hold over 80% of global solar manufacturing capacity from 2023–26”, *WoodMackenzie*.
<https://www.woodmac.com/press-releases/china-dominance-on-global-solar-supply-chain/>

Kubota, Yoko and Clarence Leong(2024.4.28.), “Why China Keeps Making More Cars Than It Needs”, *The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business/autos/why-china-keeps-making-more-cars-than-it-needs-4b8bf4cc>

Lim, Darly(2024.1.22.), “China’s global EV expansion despite trade hurdles from the US and EU”, *Think China*.
<https://www.thinkchina.sg/economy/big-read-chinas-global-ev-expansion-despite-trade-hurdles-us-and-eu>

Lin, Chengyi(2024.1.3.), “3 Drivers of China’s Booming Electric Vehicle Market”, *Harvard Business Review*.
<https://hbr.org/2024/01/3-drivers-of-chinas-booming-electric-vehicle-market>

Lovely, Mary E., David Xu and Yinhan Zhang(2021.7.), *Collateral Benefits? South Korean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US–China Trade War*, Policy Briefs, PIIE.

Mysteel(2024.1.8.), “New projects to boost China’s PDH capacity up to 77% in 2024–2025”, *Mysteel*.
<https://www.mysteel.net/news/5046553-new-projects-to-boost-chinas-pdh-capacity-up-to-77-in-2024-2025>

Nancy Wei(2024.3.2.), “Voltage Visions: China’s EV Surge in Southeast Asia”,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24/03/voltage-visions-chinas-ev-surge-in-southeast-asia/>

NHK(2024.5.26.), “G7 finance chiefs express concerns about China’s industrial overcapacity”, *NHK World Japan*.

OECD(2024.6.12.), *Latest Developments in Steelmaking Capacity and Outlook until 2026*, OECD.

Ren, Daniel(2024.4.28.), "China EV price war to worsen as market share takes priority over profit, hastening demise of smaller players", *SCMP*.

<https://www.scmp.com/business/china-business/article/3260527/china-ev-price-war-worsen-market-share-takes-priority-over-profit-hastening-demise-smaller-players>

Reuters(2024.5.17.), "EU probes into Chinese subsidies and imports", *Reuters*.

<https://www.reuters.com/business/eu-probes-chinese-subsidies-imports-2024-04-19/>

Richardson, John(2023.6.29.), "The China debate seems to be over so let's move on to other markets", *ICIS*.

<https://www.icis.com/asian-chemical-connections/2023/06/the-china-debate-is-over-so-lets-moved-on-to-other-markets/>

Russ, Kadee and Lydia Cox(2020.2.6.), "Steel Tariffs and U.S. Jobs Revisted", *ECONOFACT*.

<https://econofact.org/steel-tariffs-and-u-s-jobs-revisited>

S&P Global(2019.11.11.), "China Continues Support For New-Energy Vehicles Despite Subsidy Phaseout", *S&P Global*.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research/china-continues-support-for-new-energy-vehicles-despite-subsidy-phaseout>

Schularick, Moritz, Julian Hinz and Mathias Rauck(2024.5.31.), *EU tariffs against China redirects trade of EVs worth almost USD 4 billion*, KIEL Institute.

Sekine, Yayoi(2024.1.29.), *Energy Storage: 10 Things to Watch in 2024*, BloombergNEF.

Shi, Jiayan(2024.4.3.), *Company profiles:2023 global battery manufacturers part 2*, BloombergNEF

SNE Research(2024.3.14.), *2024 Global EV Market Expected to See Sales of 16.4 million Units, 16.6% YoY Growth*, SNE Research.

Stoikou, Evelina (2023.11.27.), "Battery Prices Are Falling Again as Raw Material Costs Drop",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11-26/battery-prices-are-falling-again-as-raw-material-costs-drop>

Taiyangnews(2024.3.15.), "CPIA Roadmap Forecasts China To Increase Solar Module Production By Over 50% To Exceed 750 GW", *Taiyangnews*.

<https://taiyangnews.info/chinese-solar-industry-to-get-bigger-better-in-2024/>

- The Economist(2024. 5. 23.), "Brazil, India and Mexico are taking on China's exports", *The Economist*,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4/05/23/brazil-india-and-mexico-are-taking-on-chinas-exports>
- Thiumsak, Thian(2023.4.26), *Industry Outlook 2023–2025: Petrochemicals*, Krungsri Research.
- U.S. Mission China(2024.4.6.), "Remarks by secretary of the treasury Janet L. Yellen at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event in Guangzhou, PRC", U.S. Embassy&Consulates In China.
- Wang, Selina(2024.5.15.), "Biden once slammed Trump's China tariffs. Now he's building on them: Analysis", *ABC News*,
<https://abcnews.go.com/Politics/biden-slammed-trumps-china-tariffs-now-building-analysis/story?id=110234482>
- White, Edward, Cheng Leng and Clair Bushey(2024.4.4.), "China's 'battery king' faces scrutiny over EV market dominance", *Financial Times*.
- Wiley Rein LLP(2013.7.), *Government Intervention and Overcapacity: Causes and Consequences for the Global Steel Industry*, Wiley Rein LLP.
- Wong, Kandy(2024.3.19.), "With 'made-by-China' under US pressure, Mexican trade probes spark concerns over curbs", *SCMP*,
<https://www.scmp.com/economy/global-economy/article/3255973/made-china-under-u-s-pressure-mexican-trade-probes-spark-concerns-over-curbs>
- Worldsteel Association(2024.4.9.), *Worldsteel Short Range Outlook April 2024*, Worldsteel Association.
- Zong, Jessica, *et al.*,(2024.4.19.), "Why China's new 2024 steel output cut policy is altering value chain dynamics", *Fastmarkets*,
<https://www.fastmarkets.com/insights/chinas-new-2024-steel-output-altering-value-chain-dynamics/>

[법안 및 정부 관련 문서]

European Commission and HR/VP contribution to the European Council(2019.3.12.), *EU-CHINA - A Strategic outlook*, JOIN(2019) 5 final,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2018.3.26.), *Notice of initiation of a safeguard investigation concerning imports of steel products*, (2018/C 111/10),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2018.7.17.),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18/1013, 17 July 2018, imposing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s with regard to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2023.11.10.), “US Steel Safeguard Measures: Questions & Answers”,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api/files/document/print/en/memo_03_225/MEMO_03_225_EN.pdf

European Commission(2023.4.14.), “EU renews anti-dumping measures on stainless steel fittings from China and Taiwan for five years, extends measures to Malaysia”, European Commission.
https://policy.trade.ec.europa.eu/news/eu-renews-anti-dumping-measures-stainless-steel-fittings-china-and-taiwan-five-years-extends-2023-04-14_en

European Commission(2023.9.13.), “2023 State of the Union Address by President von der Leyen”,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peech_23_4426

George W. Bush White House Archives(2003.12.4.), “President’s Statement on Steel”, The White House,
<https://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3/12/20031204-5.html>

Grieger, Gisela(2023.10.), *EU anti-subsidy probe into electric vehicle imports from China*, PE754,553, European Parliament.

Weaver, Marin, *Section 232 and 301 trade actions in 2018, Shifts in U.S. Merchandise Trade, 2018*, USITC.

NDRC(2024.4.3.), “国家发展改革委 工业和信息化部等部门就2024年粗钢产量调控工作进行研究部署”, NDRC,
https://www.ndrc.gov.cn/fzggw/jgsj/cys/sjdt/202404/t20240403_1365488.html

The White House(2024.4.17.),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New Actions to Protect U.S. Steel and Shipbuilding Industry from China’s Unfair Practices”,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4/17/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new-actions-to-protect-u-s-steel-and-shipbuilding-industry-from-chinas-unfair-practices/>

The White House(2024.5.14.), “FACT SHEET: President Biden Takes Action to Protect American Workers and Businesses from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5/14/fact-sheet-president-biden-takes-action-to-protect-american-workers-and-businesses-from-chinas-unfair-trade-practices/>

USDOC(2017.4.21.), “Frequently Asked Questions: Steel AD and CVD orders”, USDOC.

<https://www.commerce.gov/news/fact-sheets/2017/04/frequently-asked-questions-steel-anti-dumping-ad-and-countervailing-duty>

USDOC(2018), *The Effect of imports of steel on the national security, An investigation conducted under section 223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USDOC.

USITC(2023.3.15.), “Certain effects of section 232 and 301 tariffs reduced imports and increased prices and production in many U.S. industries”, USITC.

https://www.usitc.gov/press_room/news_release/2023/er0315_63679.htm

USTR(2018.1.22.), “President Trump Approves Relief for U.S. Washing Machine and Solar Cell Manufacturers”, USTR.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8/january/president-trump-approves-relief-us>

USTR(2019.5.17.), “Joint Statement by the US and Mexico on Section 232 duties on steel and aluminum”, USTR.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Joint_Statement_by_the_United_States_and_Mexico.pdf

USTR, “Section 201 Cases: Imported Large Residential Washing Machines and Imported Solar Cells and Modules”, Fact Sheet.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Press/fs/201%20Cases%20Fact%20Sheet.pdf>

〈2024년 KITA 통상리포트 발간 목록〉

No.	제목	작성자	발간일자
8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이정아/강금윤/오지인	24.08.22
7	인공지능(AI) 규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및 시사점	정해영	24.07.26
6	미-중 전략경쟁, 레거시 반도체로 전이되나? - 주요국의 레거시 반도체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이유진	24.07.12
5	美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한아름	24.06.10
4	한국의 FTA 체결현황 점검	통상연구실	24.05.24
3	미국의 경제안보 · 핵심기술 통제 전략 강화 및 시사점	정해영/이정아/한주희/고성은	24.02.27
2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강금윤	24.02.20
1	글로벌 공급망에 커진 또 다른 경고등 - 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	한아름	24.02.08



TRADE REPORT

202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7층
2024. 08. 22